

# 리아 후나

**우리 역사의  
겸손한 영웅들,  
16, 62, 65쪽**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법, 32쪽

고결성이 위험에 처할 때, 40, 48쪽

우리 가족의 자유의 가치 만들기,  
60쪽





“세계 전역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개척자들의  
…… 인내와  
신앙, 희생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 왕국의  
위대한 후기  
성도 찬송가  
가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우리 선조의 신앙”,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70쪽.

왼쪽: 티아레이 마테라  
라소아맘피아니나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첫 번째  
교회 회원이 되었다.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지금 이 세상에는 개척자가 필요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라

**특집 기사**

- 14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한상의  
*53세의 나이로 법대에 진학한 나는 주님께 온전히 의지해야만 성공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 16 개척자 신앙과 불굴의 정신—과거와 현재  
엠 러셀 벨라드 장로  
*과거 개척자들은 이겨 낼 수 없을 만큼의 힘든 시련에서 살아났다. 우리 간증의 타오르는 불꽃 역시 그들만큼이나 밝게 빛나기를 바란다.*
- 22 기적의 하나님: 셰필드의 슬로바키아 성도들  
에릭 더블유 코우피쉬케 장로  
*영국 셰필드의 성도들의 신앙이 현대판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교회 본부 기사**

- 8 4월 연차 대회 노트
- 10 우리의 믿음: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부름을 행할 능력을 받게 된다
- 12 교회에서 봉사함: 들어올린 텔레비전과 고양된 영  
케이스 크로닌
- 13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가르치기: 정직과 고결성
- 28 후기 성도의 소리
- 74 교회 소식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희망의 길을 함께 걸으며  
라린 포터 건트

**표지**  
 앞: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마이클 티 맘.  
 뒤쪽 사진: 크레이그 다이먼드 IRI.  
 앞 표지 내부 사진: 리차드 엠 롬니.



**32 영원을 위해 사십시오**

키스 케이 힐비그 장로

미래에 해의 왕국에서 가족과 함께 영원히 거할 날을 자주 머릿속에 그려 보십시오. 그 상태는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광스럽고 평안할 것입니다.

**36 무한한 신뢰를 경험하며**

멀리사 젠테노

청년들이 힘든 남녀 사이의 관계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을 강화했는지 이야기한다.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에리카는 알고 있습니다.

**40 연민을 갖고 판단함**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언제 판단해도 괜찮은가? 다른 사람들의 선택 의지를 존중하면서도 어떻게 우리의 표준을 지킬 수 있는가?

**44 거울 속에 비친 그 사람을 용서하며**

데이비드 덕슨

어떤 이들은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구주의 속죄는 무한하며 그 영향력은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

**47 유성 매직**

데니 도너웨이 로완

나는 너무 문질러서 아플 정도로 내 손을 씻었으나 매직 자국은 없어지지 않았다.

**48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정직과 고결성**

크리스토퍼 골든 이세 장로

**50 명예롭게 돌려주다**

발레리 베스트

나는 우연히 내 가방 안으로 떨어진 팔찌를 바라보았다. 돌려주는 것을 미룬다면 그 팔찌는 얼마나 더 우리 집에 있게 되는가?

**52 성약의 힘**

성약은 쌍방간의 약속 이상의 의미가 있다. 성약은 권능, 힘, 안전, 평화를 내포하는 약속이다.

**54 가장 좋아했던 가정의 밤**

전 세계에 사는 세 명의 청소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가정의 밤에 관해 이야기한다.

**56 성전 옆에서 보낸 여름**

데이비드 이삭슨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성전에 가는 데만 차로 10시간이나 걸렸지만, 나는 우리가 갈 수 있어서 기뻐다.



**57 가정의 밤 바퀴**

이 바퀴를 만들어 가정의 밤을 계획할 때 써 보세요.

**58 사람 살려!**

하이드 에스 스윈든

소년 시절, 토마스 에스 문슨 회장은 남을 도울 때 가장 좋은 기분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배웠다.

**60 가정에서 초등회 적용하기: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 계획의 일부이다**

**62 유적지 탐방: 미주리에서 겪은 시련**

제니퍼 메디

**64 우리들 이야기**

**65 특별한 증인: 가족 역사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66 이야기로 짜인 깔개**

케이 팀슨

함께 일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케이트와 할머니는 깔개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 냈다.

**68 이야기 교환하기**

이 활동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69 안녕하세요! 저는 엘살바도르에 사는 에리카예요**

에리카는 어떻게 가족 역사를 신 나는 일로 만들었는지 이야기한다.

**70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81 선지자 초상화**

조셉 에프 스미스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화장장:**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아터 에프 우후트도르프  
**심사도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앨런 에이치 욱스, 엠 러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른,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록, 다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크레이크 에이 카든  
**고문:** 세인 엠 보베, 브래들리 디 포스터, 크리스토퍼 골든 이세, 앤서니 디 퍼킨스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와너  
**가족 및 회원 지원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르 캐넌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라린 포터 건트  
**출판 보조:** 칼리사 젠테노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수잔 배넷, 데이비드 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튼, 민지 라예 프리드만, 로리 풀러, 캐리 에이치 가르, 제니퍼 그레이스 존슨, 히카리 로퍼츠, 마이클 알 모리스, 리차드 엠 롬니, 폴 벤덴버그, 로렌 뱅거터 월드, 줄리아 우드버리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팀:** 제넷 앤드류, 케이 피 앤드루스, 시 킴벌 보트, 토마스 차일드, 캐리 린 시 해린, 콜린 핑클러, 에릭 피 존슨, 스캇 엠 무이, 브래드 테어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거 오운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제작 팀:** 콘니 바숄프 브릿지, 허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캐슬린 허워드, 드니스 커버, जिनी 넬슨, 티 필처, 가일 터터 러퍼터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크 케이 세지워크  
**배우 책임자:** 스티븐 알 크리스텐슨

**통권:** 제560호, 제50권, 제7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3년 7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유클렙시 총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church.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church.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원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로 보내 주시거나 또는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3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July 2013 Vol. 37 No. 7.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이다.



PHOTO ILLUSTRATION BY CRAIG DIMOND © IRI

“명예롭게 돌려주다”, 50쪽: 이 이야기를 읽은 후 youth.lds.org에서 영상물 “정직: 믿는 게 나를 거야!”(영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이용 가능)를 내려받아 가족과 함께 시청할 수 있다. 가족들과 이야기 혹은 비디오를 통해 배운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정직과 고결성(19쪽)에 대해 읽을 수 있다. 활동을 하기 위해 가족들은 자신의 정직이 시험을 받을 만한 상황을 서로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종잇조각에 그 상황들을 적은 후 단지 안에 넣고 모두 하나씩 뽑게 한다. 차례대로 한 사람씩 그 상황을 읽고 그 상황에서 정직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 보게 한다.

“이야기로 짜인 깔개”, 66쪽: 이 이야기에서 케이트는 할머니에게 어릴 적에 가족들과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셨는지를 여쭙었다. 할머니는 가족과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셨는가? 할머니는 케이트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은 함께 감미로운 추억을 쌓아 갔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서 일곱 번째 단락을 읽어 본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어떻게 형성된다고 말하고 있는가? 동정심과 같은 여러 원리 중 하나를 골라서 가족과 함께 토론한다. 이 점에 대해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베풀 방법을 열거해 보라고 권할 수 있다. 그 주에 동정심을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다음 번 가정의 밤 시간에 이전에 세운 목표를 얼마나 잘 완수했는지 토론한다. “가족은 영원해”(찬송가, 189장)를 부르면서 공과를 마친다.

##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가 실린 첫 장을 나타냅니다.

- 가르침, 7, 13
- 가정의 밤, 54, 57
- 가족 역사, 65, 69
- 가족, 20, 22, 29, 30, 60, 66
- 감독, 12
- 개척자, 4, 22, 62, 80
- 결혼, 32, 36
- 계명, 40
- 관점, 32
- 교회 부름, 10
- 교회 역사, 4, 22, 62, 80, 81
- 구원의 계획, 30
- 모범, 16
- 목표, 14
- 봉사, 12
- 부모 본분, 13, 32
- 선교 사업, 22
- 선지자, 20
- 성약, 52
- 성전, 29, 56
- 순종, 40
- 신앙, 14, 36

- 안식일, 28
- 역경, 16
- 연차 대회, 8
- 예수 그리스도, 70
- 용서, 44
- 의식, 29
- 정직, 13, 31, 48, 50
- 조셉 에프 스미스, 81
- 판단함, 40
- 표준, 4
- 회개, 47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지금 이 세상에는 개척자가 필요합니다

**많은** 개척자들의 여정은 1847년부터 나부, 커틀랜드, 파웨스트, 또는 뉴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더 먼 곳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스칸디나비아, 또는 독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가족과 친구, 안락한 생활과 안전한 장소를 버리고 떠나도록 작용한 동기, 즉 위대한 신앙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질문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 우리는 왜 집을 떠나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도시인 시온으로 간다.”

안전한 가정과 약속의 땅인 시온 사이에는 거대한 대서양의 노한 파도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험한 항해를 하는 동안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두려움을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의 조용한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단순하지만 확고한 신앙에 힘을 받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항해에 나섬으로써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나부에 도착했으나 그들의 여정에는 또다시 험난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샬비어(약용 허브-옴긴이)와 바위로 묘비를 만든 무덤이 나부에서 솔트레이크시티에 이르기까지 줄을 지어 만들어졌습니다. 개척자 중 일부는 그와 같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지만 그 이름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지친 황소는 느릿느릿 걷고 포장마차는 바퀴가 삐걱거렸으며, 용감한 사람들도 발걸음은 힘겨웠습니다. 행진 북소리가 울리고 코요테는 청승맞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강하고 굳센 우리의 선조들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어서들 나가자  
이 여행이 혹 힘들지라도  
하나님 계시니 ……  
모든 것 잘되리<sup>1</sup>

이 개척자들은 주님의 다음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나의 백성은 모든 일에 시험을 받아야 하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광 곧 시온의 영광을 받을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이라.”<sup>2</sup>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는 눈물로 얼룩진 이름없는 무덤의 행렬을 뒤로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잊고 또 그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갑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는 어떠한 도전이 맞닥뜨려 있습니까? 걸어야 할 돌길이나 넘어야 할 험한 산, 건너야 할 협곡, 개척해야 할 길, 건너야 할 강은 없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해 줄 개척 정신이 참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2차 세계 대전 종식 후 수십 년간 도덕적 표준은 계속 낮아졌습니다. 범죄율이 치솟고 사람들은 서로 함부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대한 재난이라는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채 영원한 기쁨은 놓치면서 한순간의 쾌락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 세계에서 크게 융성했던 그리스인과 로마인이 어떻게 그 영광을 잃어버렸는지, 편안함과 게으름이 결국 그들을 어떻게 멸망시켰는지를 잊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유와 안전, 안락한 삶을 원했으나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진리를 수호하십시오. 끊임없이 갈구하는 영혼의 목마름은 관능과 악덕의 쾌락이 주는 기쁨을 추구하는 일로는 결코 충족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악은 결코 덕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미움은 결코 사랑을 키울 수 없습니다. 비겁함에서 용기를 얻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의심은 결코 신앙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결, 정직,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비웃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조롱이나 모욕적인 이야기를 잘 참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원리를 지키는 것을 경시해 왔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어리석은 대중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쳐다보며 결국 비가 내릴 때까지 선지자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가가 큰 교훈을 되풀이해서 배워야만 합니까? 시대는 변하지만 진리는 영원합니다. 과거

경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비탄과 고통, 고뇌와 함께 그 재난을 반복할 운명에 놓이고 말 것입니다.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을 비웃은 악마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분,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신 주님께 순종할 만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한 사전에서는 개척자를 “앞서 가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사람”<sup>3</sup>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도 이전 세대 개척자들의 특징인

용기와 목적 있는 담대함을 지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개척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아! 오늘날 이 세상은 얼마나 개척자들을 필요로 합니까! ■

주

1.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찬송가, 16장.
2. 교리와 성약 136:31.
3. *Oxford English Dictionary*, 2nd ed. (1989), “pioneer.”

###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경**전은 가정 복음 교사들이 “경고하고, 해설하며, 권면하며, 가르치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해야”(교리와 성약 20:59) 한다고 설명한다. 방문하는 가정에서 몬슨 회장님의 메시지에 담긴 경고와 권유의 말씀을 강조한다. 함께 의로운 모범을 인식하고 따르며 속임수를 피하며 다른 사람의 실수에서 배움을 얻는 방법에 관해 토론한다. 가정 복음 대상자들에게 그들이 오늘날 어떻게 개척자가 될 수 있는지 묻는다.

어린이들은 이번 호 62쪽에 실린 유적지 탐방을 읽으면서 개척자들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다.

## 신앙으로

매기 얼

**나**는 개척자들이 오래 전에 살았던 미국 네브래스카, 윈터쿼터스 주변을 거닌 일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그곳은 마치 성전 뜰처럼 신성하게 여겨지는 땅이었다.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흐려졌다. 동상 하나가 보였으나 잘 알아볼 수 없었다. 눈물을 닦고 나니 슬픔이 가득한 얼굴을 한 남녀의 동상이 보였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니 그들 발 밑의 무덤에 갓난아기가 누워 있는 것이 보였다.

이 광경을 보니 슬픔과 분노, 감사와 기쁨이 한데 섞여 마음이 복잡해졌다. 나는 그 성도들이 겪은 고통을 덜어 주고 싶었으며, 동시에 그들이 복음을 위해 치른 희생에 감사드렸다.

윈터쿼터스에서 그 경험을 통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선택의지를 행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아기의 부모는 좀 더 쉬운 길을 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선지자를 따르고 복음대로 살기 위해, 개척자들은 죽은 자녀를 묻고서도 계속 전진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대로 사는 것을 선택했고 시련을 받아들였다. 나는 복음에 대한 성도들의 헌신과, 전진하려는 결의가 희망과 신앙에서 발현된 것임을 배웠다.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자, 주님이 그들을 아시며 고통을 덜어 주시리라 믿는 신앙에서 말이다.

글쓴이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산다.



## 어린이

### 개척자가 되어 보세요

**몬** 스 회장님은 개척자란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길을 보여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림에 있는 어린이들은 옳은 것을 수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개척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림 아래에 있는 공간에 답을 적어 보세요.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상황이 적절하다면 방문하는 자매들과 토론한다.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토대로 자매들을 강화하고 또한 상호부조회의 가르침을 여러분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reliefsociety.lds.org](http://reliefsociety.lds.org)에 접속한다.



## 신앙, 가족, 구제

###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우리의 과거 개척자들은 여성으로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교사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상기시켜 왔다. 1979년 9월, 스펜서 더블유 킴블(1895~1985) 회장은 우리에게 “경전 지식에 해박[해지도록]” 촉구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경전에 해박한 전문가가 되시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말고 고양시켜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많은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여성과 어머니만큼(필요한 순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음 진리를 ‘보배롭게 간직’해야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sup>4</sup>

우리 모두는 가르치는 자이면서 동시에 배우는 자이다.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에서 가르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도울 수 있다. 의미 있는 질문을 하고 들음으로써 배우는 과정에 참여할 때, 우리는 개인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답을 찾을 수 있다.

##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교사이셨다. 그분은 “거리나 바닷가, 우물가, 또 어떤 때는 집을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무리 속에 있는 여성들을 가르치셨다. 그분은 여성들을 사랑과 친절로 대하셨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치유해 주셨다.”<sup>1</sup>

구주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가르치셨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결코 빼앗기지 않을 ‘이 좋은 편’ (누가복음 10:42)인 구원에 동참하라고 권유하셨다.”<sup>2</sup>

후기 성도 경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라” (교리와 성약 88:77) 명하셨다. 교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관하여,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2보좌인 쉐릴 에이 에스플린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복음 교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배움은 평생에 걸친 과정이며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니파이후서 28:30) 이루어집니다.”<sup>3</sup>



우리는 배우고 공부하며 기도할 때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에”(니파이후서 33:1) 메시지를 전할 성신의 권능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 성구에서

앨마서 17:2~3; 31:5; 교리와 성약 42:12~13; 84:85

#### 주

1.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 3쪽.
2. 내 왕국에 속한 딸들, 4쪽.
3. 쉐릴 에이 에스플린, “자녀가 이해하도록 가르치며”, 리야호나, 2012년 5월호, 12쪽.
4. 스펜서 더블유 킴블, 내 왕국에 속한 딸들, 50~51쪽.

###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더 나은 교사가 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2. 나는 내가 돌보는 자매들과 간증을 나누는가?

# 2013년 4월 연차 대회 노트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2013년 4월 연차 대회를 복습하면서 다음 내용(그리고 향후 리아호나에 실릴 연차 대회 노트)을 활용하여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전한 최근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연차 대회에서 발췌한 이야기



### 순종하는 법을 배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어린 시절, 7월 초부터 9월 초까지 매해 여름이면 우리 가족은 유타 프로보 캐년의 비비안 파크에 있는 별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때 그곳에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대니 라슨이란 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대니의 가족도 비비안 파크에 별장이 있었습니다. 매일 대니와 저는 어릴 적 낙원과 같던 그곳을 돌아다니며 시내와 강에서 낚시도 하고, 돌과 다른 귀중한 것들을 수집하고, 길을 걷고 산을 오르며 그저 매일 매 순간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대니와 저는 그곳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저녁에 캠프파이어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근처 들판에서 한쪽을 잘 정리해 모두가 모일 만한 자리를 마련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6월의 들판은 마르고 깔끄러운 풀로 뒤덮여 있어서 캠프파이어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은 원형 공간을 만들려고 키가 큰 풀들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다해 잡아당기고 뽑았지만, 우리 손에는 뾰뾰한 잡초 몇 줌만 겨우 들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온종일이 걸릴 것이 분명했고, 이미 힘도 빠지고 열정도 식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덟 살 아이인 제 수준에서 완벽한 해결책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대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잡초에 불을 지르면 돼 그래서 불로 태워 동그란 원을 만드는 거야!” 대니도 곧바로 동의했으며, 저는 성냥을 구하러 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덟 살이면 성냥을 사용해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대니와 저는 어른들이 지켜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성냥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둘 다 불의 위험성에 대해 거듭 경고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들이 성냥을 어디에 두는지를 알았고, 우리는 단지 캠프파이어 장소를 마련할 목적으로 성냥이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두 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별장으로 달려가서는 보는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서 성냥 몇 개를 집어서 재빨리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할 방책이 내 주머니에 들어 있다는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대니에게 다시 달려갔습니다. 불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태운 뒤에 마술처럼 꺼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돌에 성냥을 그어 바싹 마른 6월의 풀밭에 불을 붙였고, 풀은 기름을 흠뻑 먹은 듯 불타올랐습니다. 처음에



대니와 저는 잡초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무척 기뻐했지만, 곧 불이 저절로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저희는 겁에 질려 당황해 했습니다. 불길은 맹렬한 기세로 풀밭을 태우며 산으로 향했고, 그 길에서 있던 소나무들과 모든 것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윽고 비비안 파크에 있던 사람들이 총동원되어 분주히 오가며 젖은 마대로 두드리면서 불길을 잡으려 했습니다. 몇 시간 후, 드디어 마지막 불씨가 잡혔습니다. 오래된 소나무들도, 불길이 닿을 뻔했던 집들도 무사했습니다.

대니와 저는 그날 어렵지만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배웠는데, 그 중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순종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우리의 물리적 안전을 보장해 주는 규칙과 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가 위험천만한 이 필멸의 삶을 성공적으로 헤쳐 나가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안전을 도모하는 지침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

“순종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89~90쪽.

### 생각해 볼 질문

-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면에서 순종의 모범이 됩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일지에 기록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이 주제에 대한 추가 자료: 복음 원리 (2009), “순종,” 200-206; “Obedience,” in Gospel Topics on LDS.org; D. Todd Christofferson, “The Power of Covenants,” *Liahona and Ensign*, May 2009, 19-23.

## 회원 선교사에게 주는 선지자의 말씀

“제가 약속하건대, 누구에게 말을 건네야 할지 알기 위해 기도한다면 이름과 얼굴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는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신앙이 의심을 몰아내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그것은 기적입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79쪽.



### 4월 연차 대회 현재의 선교사 상태

현재 선교사업을 하고 있는 선교사 수	65,634명
선교사 부름을 받았으나 아직 선교사 훈련원에 입소하지 않은 젊은이들의 수	20,000명 이상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과 현재 접견 과정에 있는 젊은이들의 수	6,000명 이상
새로 신설된 선교부 수	58

토마스 에스 몬슨,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5쪽.

#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부름을 행할 능력을 받게 된다

**교** 회에서 회원들 대부분은 “부름”, 즉 봉사하도록 임무 지명을 받을 기회가 많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주님은 우리 각자가 그분의 교회에서 부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재능과 영향력으로 축복받을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sup>1</sup>

우리와 똑같이 부름을 받아 봉사하는 사람들인 교회 지도자들은 다른 회원들이 부름을 받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화롭게 하기를 바란다. 각각의 새로운 부름은 봉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은 신권 지도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구한 후 주게 된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습니다.”라고 말씀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아시며, 그분의 교회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부름을 주어야 할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sup>2</sup>

우리는 부름을 행하면서 구주를 대변하며,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작고 사소해 보이더라도 영원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헌신적인 초등회 교사의 영향으로 한 아이가 언젠가 선교 사업을 나가게 될 수도 있다. 혹은 안내자의 친절함 인사로 방황하던 회원이 교회에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책임감으로 중압감을 느낄 때에도 우리가 부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기도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간구할 때, 그분은 영감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잘 봉사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다. 주님은 그분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을 도우시며 그들의 노력에 그분의 권능을 더해 주실 것이다.(교리와 성약 84:88 참조)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약속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응한다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를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sup>3</sup>

우리가 주님께서 보이신 봉사의 모범을 따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부름과 교회에서 맡은 책임을 영화롭게 한다면, 우리 삶이 축복받고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모로나아서 7:48; 교리와 성약 106:3 참조) ■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로렌조 스노우*(2012) 14장을 참조한다.

## 주

1.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말씀 인용,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들어올리십시오”,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54쪽.
2. 헨리 비 아이어링, “자신의 부름을 수행하십시오”,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76쪽.
3. 토마스 에스 몬슨, “봉사하도록 부름 받음”, *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44쪽.

## 온갖 노력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권세가 주님께 의해 몇 배 커지리라는 확고한 확신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최선의 노력과 기꺼이 행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신앙의 기도로 기쁘게 행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은 여러분을 인도하도록 성신을 보내시어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여러분이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증대될 것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제일회장단 제1보좌, “자신의 부름을 수행하십시오”,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78쪽.

우리는 지침서, 교재, 교회 지도자의 권고, 기타 자료를 통해 우리의 책임을 배우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주님의 일을 도울 때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기도로 간구하여 받을 수 있다. (고린도와 성약 84:88 참조)

우리는 부름을 구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합당한 신권 권세로부터 오는 부름을 통상적으로 거절해서도 안 된다.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면 축복과 기쁨이 따른다. (마태복음 25:23 참조)

모든 부름은 똑같이 중요하다. 교회는 상호부조회 회장뿐만 아니라 유아반 지도자도 필요하다. (고린도전서 12:14~18 참조)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는지가 어떤 부름에서 봉사하는가보다 훨씬 중요하다.

### 질의응답

#### 여러분의 교회에는 왜 무보수로 일하는 성직자가 있습니까?

일찍이 주님은 다양한 출신의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몰몬경에는 선지자 엘마가 신권 지도자들을 선택하고서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 자신들의 생계를 위하여 스스로의 손으로 일하게 하였더라. ……

또 제사들은 자기의 생계를 백성들에게 의지해서는 아니되었고, 그들의 수고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니”(모사이야서 18:24, 26; 또한 니파이후서 26:29~31; 신앙개조 제5조 참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봉사하라는 부름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우리의 재능과 영적인 은사를 발전시키며 나누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봉사는 주님의 축복으로 충분히 보상받게 됩니다.

# 들어올린 텔레비전과 고양된 영

## 케이스 크로닌

**남**편은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복음에 깊이 헌신해 왔다. 하지만 오랫동안 매주 하는 교회 모임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남편은 그 밖에 열리는 신권 모임과 방송에는 잘 참여하려 하지 않았다. 와드 회원들은 남편을 친절하게 대해 주고 용기를 주었으나, 남편이 모임에 참석하게 하려면 어떤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지는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남편은 종종 외로움과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막 새 와드로 이사왔을 무렵 연차 대회가 다가왔다. 남편은 마지못해 연차 대회 신권 모임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도 방송을 볼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고민했다. 남편이 도착해서 보니 대형 오버헤드 프로젝터에 자막을 넣는 법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남편은 텔레비전을 옮겨와서 구석에다 설치했다. 하지만 여전히 작은 문제가 있었다. 텔레비전 연결용 전선을 프로젝터에 꽂아 쓰고 있었기에 텔레비전으로는 방송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 익숙한 남편은 도서관에 가서 프로젝터용 전선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상자와 캐비닛을 뒤지다가 마침내 남편은 프로젝터에 연결하는 짧은 전선을 찾아냈다.

방송이 막 시작되려던 참이라

사람들은 방송 연결을 중단하고 재설치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남편이 찾은 전선은 이동식 카트에 놓인 텔레비전을 연결하기에 너무 짧았기에 텔레비전을 더 낮은 탁자로 옮겨야 했다. 남편은 예배당 바깥으로 카트를 밀고 가서 옆 방으로 갔다. 거기서 텔레비전 선을 풀면서 남편은 텔레비전을 같이 들어올려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남편은 누군가 방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감독님이었다. 남편과 감독님은 텔레비전을 함께 들어올려 탁자에 놓았다. 남편은 마음이 밝아졌다. 남편은 텔레비전이 나오도록 손을 보고 있었고 감독님은 의자 하나를 가져오셔서 텔레비전 앞에 놓으셨다.

남편은 감독님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며 악수했다. 그리고 감독님은 몸을 돌려 문 쪽으로 걸어가셨다. 놀랍게도 감독님은 문을 지나쳐 벽에 의자를 세워 둔 쪽으로 걸어가시는 게 아닌가! 그분은 의자 하나를 더

가져오셔서 남편 옆에 앉으셨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모임을 시청했다.

현재 남편은 감독님이 여시는 모임에 열성적으로 참석한다. 감독님의 단순하지만 친절한 행위는 남편의 영을 들어올렸고, 남편은 마음속으로 감사함을 느꼈다. 어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남편은 더는 외롭거나 환대받지 못한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한 목자가 보인 영감 어린 행동 덕분에 남편의 관점은 영원히 바뀌었다. ■  
글쓴이는 미국 미시시피에 산다.

**다**양한 장애와 관련한 자료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disabilities.lds.org](http://disabilities.lds.org)에 접속한다.





# 정직과 고결성

**정**직하고 고결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혹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언제나 옳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번 호 48~49쪽에 실린 기사에서 칠십인인 크리스토펠 골든이 세 장로의 말씀이다.

이 기사에서는 십이사도 정원회 조셉 비 워스린(1917~2008) 장로의 삶에서 일어난 한 일화를 소개한다. 대학생 때 워스린 장로는 미국 미식축구 챔피언십 경기에 출전했다. 그는 볼을 받아서 앞으로 몸을 날렸고 골라인을 5센티미터 정도 앞두고 있었다. 선수들 밑에 깔린 상태에서 공을 앞으로 던지는 대신 그는 어머니께서 언제나 옳은 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떠올렸다. 그는 공이 있던 자리에 그냥 두었다.

여러분의 모범과 함께 다음에 제시하는 제안은 자녀에게 이러한 복음 원리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청소년을 가르치기 위한 제안

-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에 나오는 정직과 고결성 편을 읽고 그것이 주는 축복에 대해 토론한다.
- 청소년에게 가정의 밤에서 사용할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는 퀴즈를 준비하도록 부탁한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안내서로 삼아 누군가에게 정직과 고결성을 보여 줄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나열한다. 가족이 함께 퀴즈를 풀고 그 결과에 대해 토론한다.

-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정직에 대해 여러 번 말씀했다. 그의 메시지 중 하나를 찾아서 가족과 함께 나눈다. 다음은 그의 말씀들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 모범으로 가르친 교사”,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67쪽.

“행복—보편적인 추구”, *리아호나*, 1996년 3월호, 2쪽.

“풍요한 삶을 찾아서”, *성도의 빛*, 1988년 3월호, 2쪽.

### 어린이를 가르치기 위한 제안

- 고결성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가정의 밤 시간에 자녀들 앞에 간식을 놓아 둔다. 자녀에게 먹으라는 허락이 있기 전까지 손대지 말라고 한다. 그런 다음 여러분은 눈을 감거나 눈을 가린 후 “내가 볼 수 없다고 해서 지금 간식을 먹어도 괜찮을까?” 하고 묻는다. 개인 기도처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옳은 것을 행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한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그들을 보실 수 있다고 상기시켜 준다.
- 정직과 부정직을 구별하도록 돕기

### 정직과 고결성에 관한 경전 구절

욥기 27:4~5

잠언 20:7

베드로전서 2:12

엘마서 53:20

교리와 성약 124:15

신앙개조 제13조

위해 청소년인 자녀들과 함께 만든 퀴즈(위 참조)를 사용하거나 어린 자녀들에게 맞는 퀴즈를 만든다. 그들이 한 대답에 관해 토론해 보게 한다. 청소년과 어린이인 자녀를 함께 키우고 있다면 청소년 자녀들에게 어린 동생들이 퀴즈를 맞출 수 있게 도와주라고 한다.■



#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한상의

**12**년 전에 나는 아내와 네 아들을 데리고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다. 뉴질랜드에서 한인 학교 교감으로 일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정책, 절차에 적응하느라 애먹는 한국인들을 자주 봤다. 나는 그들을 돕고 싶었고, 또 뉴질랜드에도 이바지하고 싶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면 이 두 나라와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따라서 내 결정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기도했고 나는 53세의 늦깎이 법대생이 되기로 했다.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강의 계획서를 받아보았을 때,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깨달음이 밀려왔다. 강의 계획서는 너무 두꺼워 보였고 내용조차 내 이해력을 넘어서는 듯했다. 약 10년간 연차 대회 통역을 돕고 뉴질랜드에서 언어학 석사 학위도 땀지만 법률 용어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어였다.

첫 수업 후 집에 오면서 계속 다녀야 할지, 아니면 시작하기도 전에 그만둬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했다. 불확실함만 가득했던 그 시기에



주님은 한상의 형제가 55세의 나이로 법대를 졸업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축복해 주셨다.

‘주님께 온전히 의지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알았기에 나는 그분의 도움을 간구했다. 나는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을 떠올리며 큰 위안을 받았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누가복음 1:37) 그 구절은 내게 전진해 나갈 힘을 주었다.

공부하면서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길을 예비하셨고 나를 인도하고 도움을 줄 천사 같은 사람들을 보내 주셨다.

하루는 어떤 과제를 하느라 애를 먹고 있었다. 온 힘을 다했지만 교수님이 과연 뭘 원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일요일이 왔고 나는 교회에서 받은 임무에 집중하기 위해 모든 공부를 제쳐놓았다. 스테이크 고등평의원이었던 나는 성찬식 말씀을 하도록 지명받은 한 와드를 방문했다. 그런데, 모임이 끝난 후 한 형제님이 다가와 나를 수업 시간에 봤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가 법대생인 것을 전혀 몰랐다. 그는 내게 과제를 잘 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러자 그는 선뜻 우리 집에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다. 내가 그 와드를 방문해서 그 형제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나는 과제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위해 보내신 천사였다.

가장 어려웠던 수업 시간에 교수님은 쉬는 시간 없이 2시간 연속 강의를 하시곤 했다.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수님의 역량도 알아듣기 어려웠기에 나는 양해를 구하고서 복습을 위해 수업 내용을 녹음했다. 어느 날 나는 알지 못하는 어떤 여성에게서 이메일을 받았다. 그녀는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고 소개하며 내가 녹음한 것을 좀 빌려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직장 일정 때문에 가끔 수업에 빠져야 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나는 그녀에게 내가 녹음을 한 것을 빌려 줄 수 있어 기뻐했다. 나는 그녀를 돕는다고 생각했지만 곧 그녀가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 보내신 또 다른 천사임을 알게 되었다. 그 수업에서 학점을 얻으려면 두 개의 과제를 제출하고 세 시간 동안 시험을 봐야 했다. 그녀는 내가 과제를 끝내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까지 도와주었다. 그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학점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늦깎이 학생인데다 모국어보다 영어가 아니기에 겪게 되는 어려움과 함께 나는 학업을 끝마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책임을 지고 있었다. 내 직장,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책임, 교회 부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했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가족들에게 보살핌과 관심을 보여 줘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도 수행해야 했다. 동료 하나가 내 학교 수업과 더불어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알게 되자 그는 다른 할 일들을 하면서 동시에 변호사 공부를 하는 내게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누가복음 18:27)라는 확신이 있었다.

55세의 나이로 나는 뉴질랜드 고등법원의 법무관이자 변호사가 되었다. 나는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변호사가 된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과, 우리의 의로운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간증이 더 강해진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나는 그분의 도움이라면 불가능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 ■ 글쓴이는 뉴질랜드에 산다.



### 시련은 성장하게 해 줍니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투는 우리의 배움만큼 커다란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시련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발전시킨 강점들은 앞으로 올 영원 동안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앨런 에이치 옥스 장로와 크리스틴 엠 옥스 자매, “배움과 후기 성도”, 리아호나, 2009년 4월호, 27쪽.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개척자 신앙과 불굴의 정신 과거와 현재

우리는 오늘날의 개척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며,  
지역 사회에서 선한 대의를 지지하고, 우리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며  
함께 걸어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초창기 역사는  
큰 시련으로 점철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초기 시절을  
견뎌 낸 브리검 영, 히버  
시 김볼, 존 테일러,  
윌포드 우드럽, 로렌조  
스노우, 조셉 에프  
스미스 같은 지도자들은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대평원을 건너고 로키  
산맥에 교회를 수립하는,  
극복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힘든 시련을 견뎌 낼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개척자들이 오늘날 후기 성도  
가운데에서 성취된 것들을 본다면, 밝게  
웃음 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개척자들에게 많은 신세를 졌으며, 지금의  
성공은 어제의 겸손한 거인들의 어깨와 용기  
위에 이룩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척자 재연 행사에서 젊은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으며 벨라드 장로는 이같이  
말씀했다. “우리는 개척자들에게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지금의 성공은 어제의 겸손한  
거인들의 어깨와 용기 위에 이룩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든 비  
헝클리(1910~2008)  
회장님은 충실한  
개척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참가치를 깨닫고 미래를  
보는 눈을 얻고자 과거를  
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무엇이 앞에 놓여 있는지  
헤쳐 나갈 힘을 얻고자  
앞서 간 사람들의 덕행을  
살펴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열심히 일하고도  
얻은 것이 거의 없었지만,

아주 잘 육성된 꿈과 초기 계획으로 현재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해 주고 훌륭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해 준 사람들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 모두 그들의 엄청난 모범에 자극을 받아  
강렬한 동기를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개인이 모두 자신의 삶에서  
개척자이기 때문입니다.”<sup>1</sup>



Photograph  
The photograph shows a group of people and horse-drawn wagons in a dusty, open landscape. A finger points to a specific person in the photo.

## 신앙으로 뒤를 따르며

브리검 영의 뒤를 쫓아 황량한 사막으로 따라나서는 신앙을 지닌 사람들은 비단 교회 지도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용감했던 수많은 교회 회원들 또한 그 길을 따라나섰습니다. 교회 역사를 찾아보면, 1836년에 230에이커에 달하는 농장에 멋진 석조 집, 골조 헛간 2동을 포함한 뉴욕 워터 타운의 부유한 환경을 버리고서 가족과 함께 오하이오 커틀랜드 성도들과 함께하려고 이주했던 올리버 헌팅턴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남겨 두고 떠난 후에 올리버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서로가 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더욱이 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언제 빵을 구하게 될지 기약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자녀들이 빵을 달라고 울부짖는 모습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은 끔찍한 고통이었다.” 부모님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불평이나 비난하는 것, 또는 사업의 진실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었다는 올리버의 말에서 이 가족의 신앙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sup>2</sup>

이 경륜의 시대에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의 딸인 에밀리 파트리지는 겨우 일곱 살이던 1831년에 오하이오 페이네스빌에 있던 안락한 집을 떠나 미주리 잭슨 군으로 이주하던 일을 회상했습니다.<sup>3</sup>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가족은 폭도들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 클레이 군에 다시 정착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마침내 찾게 된 집에 대해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그 오래된 통나무집은 마구간으로 사용하던 것이었다. …… 큰 방 하나와 지붕을 비스듬히 달아내어 지은 별채가 있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바닥은 갈가리 찢겨 있었고 쥐와 방울뱀이 득실대서 안락함과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나마 머물 만한 방에는 큰 벽난로가 있었고, 불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담요를 매달아 열댓 명 정도 되는 두 가족이 몹시 추운 날씨에 얼어붙지 않으려 담요 안쪽으로 모여들었다. 얼마나 추웠는지 아버지가 불가에 앉아 글을 쓰시는데 펜에 묻힌 잉크가 얼 정도였다.”<sup>4</sup>

이 가족은 나중에 일리노이로 이주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들의 경험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힘든 시절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집과 재산을 강탈당하고 내몰렸기에 매우 어렵고 궁핍했으며 많이 아팠다.”<sup>5</sup>

피비 카터도 마찬가지로 1835년에 메인 스카보로에서 오하이오 커틀랜드로 1,200킬로미터나 되는 길을 갔습니다. 피비는 28세 때 교회 회원들과 함께 모이기로 결심했는데, 그 여정은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친구들은 내가 가려는 길에 놀라워했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렇지만 마음속의 뭔가가 그렇게 하게 했다. 집을 떠나겠다는 내 결심에 어머니가 견딜 수 없을



**피비 카터는 자신이 선택한 신앙의 발걸음이 메인 주 스카보로에 있는 고향집을 뒤로 하고 커틀랜드를 향해 1,200킬로미터를 가는 것보다 훨씬 먼 여행으로 이어질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

정도로 몹시 상심하셨기에 내 마음에 임한 영만 아니었다면 나는 결국 흔들리고 말았을 것이다. 어머니는 차라리 내가 죽어 땅에 묻히는 것을 보는 것이 혼자서 비정한 세상 속으로 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낫겠다고 말씀하셨다. …… 어머니는 간곡히 말씀하셨다. ‘피비, 물몬이즘이 거짓이란 걸 알게 되면 돌아와 주겠니?’ 나는 세 번이나 이렇게 답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 이윽고 떠나는 날이 찾아왔을 때, 나는 마주 보고 작별을 고할 자신이 없어 가족 모두에게 한 사람씩 작별 인사를 적어 탁자에 올려놓고는 계단을 뛰어 내려와 마차에 몸을 실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랑하는 집을 떠나왔다.”<sup>6</sup>

그 순간 피비는 자신이 선택한 신앙의 발걸음이 커틀랜드까지 가는 1,200킬로미터보다 훨씬 먼 여행으로 이어질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윌포드 우드럽과 결혼했고, 남편과 함께 미주리를 지나 나부로, 그 후 황야를 지나 솔트레이크 밸리까지 2,170킬로미터를 가야 했습니다.

제 증조부이신 헨리 벨라드는 1849년 2월에 영국 태참에서 17세 때 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미국으로 가는 뱃삿을 벌기 위해 로렌조와 에라스투스 스노우가 부분적으로 소유한 회사에서 2년간 일하기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양 떼를 몰고 솔트레이크 밸리로 가는 일에 고용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를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10월에 양 떼를 몰고 작은 산을 내려와 에미그레이션



캐년 어귀로 들어섰을 때 처음으로 솔트레이크 벨리를 보았다. 마침내 '약속의 땅'을 보게 되었다는 기쁨 속에서도 나는 누가 나를 볼까 봐 두려워하며 지냈다. 내가 걸친 녀망가 몸을 제대로 가리지 못했고, 그렇게 험벗은 것이 부끄러웠다. 나는 땅거미가 질 때까지 숲 속에 숨어 지냈다. 어두워지고 나서야 들판을 가로질러 불빛이 비치는 집으로 가서 …… 소심하게 문을 두드렸다. 다행히도 문을 열어 준 것은 남자였고, 촛불의 밝기는 내 모습을 다른 사람들 눈에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여정을 계속하여 부모님을 다시 뵈 수 있도록 벗은 몸을 가릴 옷을 좀 달라고 간청했다. 나는 옷 몇 가지를 받았으며, 다음 날 여행을 계속하여 1852년 10월 16일 솔트레이크에 도착했다. 아무 탈 없이 미래의 집에 도착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다.”<sup>7</sup>

지금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축복을 돌이켜 볼 때면 제 마음에는 그토록 송고하고 용감했던 선조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가득 차오릅니다.

제 증조모는 마거릿 맥닐이란 스코틀랜드 아가씨로, 열세 살 때 부모님과 함께 유타로 이주해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등에 어린 동생 제임스를 업고 암소를 몰며 대평원을 걸어오셨습니다. 할머니의 가족은 옥든 변두리에서 야영을 했는데, 후에 그분의 자서전에는 당시의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있던 곳에서 들판을 가로지르면 작은 집이 있었는데, 텃밭에 호박이 많았다. 우리는 모두 굶주려서 죽을 지경이었다. 어머니는 호박 하나를 얻어 오라며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 우리는 돈이 한 푼도 없었고 아이들은 먹지 못해 아주 약해져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가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서 들어오렴, 네가 올 줄 알았단다. 네게 음식을 주라는 말씀을 들었거든.’ 할머니는 새로 구운 커다란 빵 한 덩어리를 주시면서, 가서 어머니께 조만간 찾아가겠다는 말을 전하라고 하셨다. 얼마

**헨리 벨라드는 누더기 차림으로 솔트레이크벨리에 도착했다. 아들이 내렸을 때 “여정을 계속하여 부모님을 다시 뵈 수 있도록 벗은 몸을 가릴 옷을 좀 달라고 간청했다.”**

지나지 않아 그 할머니는 정성껏 준비한 맛있는 저녁을 차려 오셨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런 음식을 먹어 본 적이 없었다.”<sup>8</sup>

### 실질적이고 영적인 구조

개척자들의 경험에서 우리는 165년 전에 대평원을 건널 때 어떤 참 신앙과 용기가 필요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비록 손수레 부대 개척자들은 1847년부터 1868년에 걸쳐 이주한 후기 성도 이민자 중 10퍼센트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개척자 세대의 충실함과 희생을 대변하는 후기 성도 문화의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윌리와 마틴 손수레 부대원들은 와이오밍에서 일찍 찾아온 눈에 갇혔고, 많은 성도가 추위 속에 죽어 갔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가족은 개척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도보 여행에 참가했는데, 윌리 부대가 고립되어 추위와 허기로 떨었던 스위트워터 지역을 내려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지에서 우리는 그들이 겪어야 했던 혹독한 시련과 구조의 기쁨에 대해 읽습니다. 존 치슬렛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해가 멀리 언덕 아래로 아름답게 질 무렵 ..... 몇 대의 포장 마차가 ..... 우리를 향해 오는 것을 보았다. 그 소식이 들릴처럼 삼시간에 진영에 퍼졌다. .... 기쁨의 환호성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 햇빛에 그을린 강인한 남자들의 주름 깊은 뺨으로 눈물이 흘렀다. ....

그날 저녁, 오랜만에 시온의 노래가 진영에 울려 퍼졌다. .... 허기를 달래고 하나님과 선한 형제들을 향한 감사로 마음을 가득 채운 채, 우리는 함께 기도드리고 잠자리에 들었다.”<sup>9</sup>

지금은 “에미너스”라 불리는 언덕에 섰을 때, 함께한 사람들과 제 가족에게 간증을 나눠야 한다는 느낌이 들어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충실한 개척자들이 구조대에게 그토록 감사했듯이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구조에 깊이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일행에게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에 상관 없이 세상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시며 모든 인류를 구조하실 것이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속죄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오늘을 위한 희망과 영원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 오늘날의 광야를 극복하여

개척자들은 고통을 겪어냄으로써 삶의 힘을 구축했으며, 그 힘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우리 대다수는 소지품 몇 가지만 챙겨 마차나 손수레에 싣고 2,090킬로미터를 걸어야 하는 방식으로 신앙과 용기를 증명하도록 요구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날 다른 어려움이, 올라야

할 다른 산이, 건너야 할 다른 강이, “백합화 같이 피어[나는]”(이사야 35:1) 다른 계곡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복하도록 주어진 광야가 우리 개척자 조상들이 부딪혔던, 유타로 이어지는 바위투성이의 거친 길과 황량한 풍경은 아닐지라도 그곳보다 결코 덜 힘들거나 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힘겨움은 죄와 영적 무관심에 흠뻑 젖어 어느 곳에서나 방종과 부정직,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광야는 혼란과, 상충하는 메시지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개척자들은 시온과 솔트레이크밸리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신앙을 품고 바위로 뒤덮인 산마루를 넘고, 먼지 또는 눈으로 덮인 산길을 넘으면서 거친 자연과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개척자와 같은 근면과 신앙으로 무장하여 주님과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율법대로 살며, 모든 일을 신뢰할 만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함을 결코 가벼이 여기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컴퓨터나 태블릿, 휴대전화 등을 통해 너무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악한 뒷말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시하고 건성으로 행한다면 루시퍼는 우리의 결의를 약해지게 하고, 우리의 신앙과 주님과 서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파괴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며, 우리는 이 세상의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해악을 피하려면 진정한 현대의 개척자로서 신앙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개척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며, 지역 사회에서 좋은 대의를



에밀리 파트리지는 “힘든 시절이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집과 재산을 강탈당하고 내몰렸기에 어렵고 매우 궁핍했으며 많이 아팠다.”고 회상했다.



지지하며, 우리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며 함께 걸어 나가야 합니다.

진심으로 믿는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좀 더 할 일이 없겠습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분명해진다면, 신앙은 우리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확신을 품고서 힘과 인도를 간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발자취에 신앙’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개척자 조상들이 그러했으므로 오늘날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개척자의 발걸음을 이끌었던 바로 그 기상을 우리 자녀를 비롯한 후손들에게 불어넣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개척자로 함께 서서 언제나 우리 가족을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기원합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 선조들을 공경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과거로부터 배우며 그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미래를 맞을 힘과 용기를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역이 우리 마음과 정신에 환하게 타오르기를 기원합니다. 후기 성도 개척자의 삶에서 그랬던 것처럼 간증의 불길이 우리 골수에서 타오르기를 기원합니다. ■

2012년 7월 15일, 유타 옥든에서 전한 말씀에서 발췌

주

1. Gordon B. Hinckley, “The Faith of the Pioneers,” *Ensign*, July 1984, 3.
2. Oliver B. Huntington, *Oliver B. Huntington Diary and Reminiscences*, 1843 June–1900 January, 26–28 참조.
3. Emily D. P. Young, “Autobiography,” *Woman’s Exponent*, Dec. 1, 1884, 102 참조.
4. Emily D. P. Young, “Autobiography,” *Woman’s Exponent*, Feb. 15, 1885, 138.
5. Emily D. P. Young, “Autobiography,” *Woman’s Exponent*, Aug. 1, 1885, 37.
6. Phoebe Carter Woodruff, in Augusta Joyce Crocheron, *Representative Women of Deseret* (1884), 35–36.
7. Henry Ballard, in Douglas O. Crookston, ed., *Henry Ballard: The Story of a Courageous Pioneer, 1832–1908* (1994), 14–15.
8. Margaret McNeil Ballard, in Susan Arrington Madsen, *I Walked to Zion: True Stories of Young Pioneers on the Mormon Trail* (1994), 127.
9. John Chislett, in LeRoy R. Hafen and Ann W. Hafen, *Handcarts to Zion: The Story of a Unique Western Migration, 1856–1860* (1960), 106, 107.

**마거릿 맥닐은 가족이 유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굶주려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호박 하나를 얻어 오라며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 우리는 돈이 한 푼도 없었고 아이들은 먹지 못해 아주 약해져 있었다.”**







에릭 더블유 코우피쉬케  
장로  
칠십인

# 기적의 하나님

## 셰필드의 슬로바키아 성도들

영국 셰필드에서는 신권 지도자, 선교사, 와드 평의회, 회원들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을 펼친 결과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민** 는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힘찬 설교를 하면서 선지자 물문은 “기적이 그쳤느냐?”라는 한 마디의 질문을 했습니다. 곧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모로나아서 7:29)

그런 뒤 물문은 마지막 날에 성신과 천사의 성역, 우리의 기도와 신앙, 주님의 기적이 결합하여 상호작용함으로써 위대한 구원 사업이 펼쳐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모로나아서 7:33~37, 48 참조)

**왼쪽: 니콜라스 파스 장로와 조셉 맥케이 장로(아래쪽 삽입 사진). 두 사람은 슬로바키아 성도와 구도자를 가르치며 놀라운 시간을 보냈으며, 그 경험은 선교사들이 셰필드 파케이트 인근의 인도에서 루도비트 칸드라츠 형제(아내와 함께 있는 위쪽 사진)를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6월에 열린 선교부 회장 훈련 세미나에서 제일회장단과 심이사도 정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 회원들이 복음을 나눌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다시 주목했습니다. 전임 선교사들은 이런 책임을 지닌 회원들을 돕습니다. 스테이크와 와드 평의회는 선교사들과 회원들이 선교 사업 관련 일을 조직하고 수월하게 해 나가도록 돕습니다. 영국의 한 와드에 대한 본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지도자, 회원, 와드 평의회가 이 원리를 받아들여 지역 상황에 맞게 적용했을 때 개종이라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전 어디에서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제3니파이 24:6, 교리와 성약 20:12 참조) “온 천하에 다니며 ……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교리와 성약 68:8) 이 계명을 성취하려 노력할 때, 다음 원리를 숙지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면서 보이는 우리의 신앙에 따라 기적을 일으키신다.
- 성신은 개종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자발적인 희생

유럽 지역에서 봉사하는 동안 저는 영국 셰필드에서 이런 원리를 실천하여 기적이 펼쳐지는 것을 보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2008년 말에 셰필드 제1와드에서 봉사하는 마크 던든 감독은 어떻게 와드가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스테이크 회장은 감독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것을 자발적으로 희생해야 할까요?”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던든 감독은 훌륭한 와드 선교 책임자가 그 열쇠이며, 아울러 제 기능을 하는 와드 평의회와, 영의 속삭임을 기꺼이 듣는 태도가 필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숙고하고 기도한 끝에 던든 감독은 자신의 신권 열쇠를 행사하고 영의 속삭임을 따라 보좌인 그레고리 네틀쉽 형제와 로버트 맥기웬 형제를 해임했습니다. 그런

다음 던든 감독은 네틀쉽 형제를 와드 선교 책임자로 새로 부르고, 맥기웬 형제를 와드 선교 책임자 보조로 불렀습니다. 감독단이었던 이 세 사람은 막역한 사이였기에 이런 변화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던든 감독은 특히 이런 상황에서 이 결정이 옳다는 것을 알았고, 두 보좌는 새로운 부름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감독은 새로운 와드 선교 책임자와 보조, 그리고 와드 평의회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작성하고 와드 발전을 위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계획을 실천해 나가면서 그들은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개종자 침례가 크게 늘었고, 많은 사람이 교회로 돌아와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와드 지도자들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신앙과 봉사가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 가슴 뭉클한 사랑

2011년 3월에 한 젊은 선교사와 그 동반자가 셰필드 거리에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니콜라스 파스 장로는 한 남자가 아내와 함께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말을 건네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파스 장로와 동반자가 달려가 그 부부를 따라잡았습니다.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부부는 슬로바키아 출신이라 영어를 할 수 없었기에, 동행하던 친구가 통역을 해 주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토론하면서 선교사들은 그림을 사용하여 첫번째 시현과 회복의 메시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부부는 토론을 시작하자는 선교사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토론 약속 시간을 정했습니다.

가장인 루도비트 칸드라츠 형제가 물문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금연을 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선교사들은 여러 명의 통역자를 두어야 했고 슬로바키아어도

조금은 배워야 했습니다. 2011년 5월 14일, 루도비트 형제와 딸 하나, 두 명의 친척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받을 때 칸드라츠 형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통역을 통해 그는 선교사들을 만났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셰필드 시내에서 파스 장로와 동반자가 지나쳐 갈 때 그는 가슴 속으로 따뜻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느낌을 간파하고 계속 걸었지만, 선교사들을 다시 흘깃 쳐다보았을 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선교사들의 모습에서 가슴 뭉클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칸드라츠 형제는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선교사들이 자기에게 다가오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 년 먼저 교회에 들어온 다른 슬로바키아 출신의 한 가족과 함께 이런 침례 사례는 영국 셰필드에 거주하는 슬로바키아인 사이에 현대의 개종에 관한 기적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회원들은 매주 교회에 올 때 다른 친척들과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들에게 문을 열어 주었고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도록 권유했습니다.

파스 장로는 새로운 동반자인 조셉 맥케이 장로와 함께 그 가족들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축복을 주었습니다. 구도자와 개종자, 선교사, 스테이크 및 와드 지도자, 회원 모두가 하나같이 가르치고, 배우고, 영의 은사를 받는 기이한 시간이었습니다.

### “함께하며, 그들의 힘을 복돋아 주며”

2011년 여름과 가을 내내 슬로바키아인이 더 많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수가 계속 증가하여 현지 회원들이 계속해서 집회소까지 그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하고 집에 데려다주는 것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여러 주 동안 충실하게 참석해 온 슬로바키아 회원들은 편도로 약 8킬로미터를 걸어와서

*마크 던든 감독(위쪽 사진)과 와드 선교 책임자, 와드 평의회*의 선교 노력은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보상받았다. 그 결과 수십 명의 슬로바키아인이 교회로 들어와서 왼쪽에 보이는 다벨 거리를 거쳐 8킬로미터를 걸어 일요일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언어로 진행되는 일요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2011년 9월에 세필드 스테이크 회장이 재조직되었고 던든 감독이 신임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달 뒤에 통역자들의 도움을 받아 영어와 슬로바키아어로 진행되는 노변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연단에 앉아 있는 동안 던든 회장은 슬로바키아인 회원들을 세필드 제1와드에 소속된 그룹으로 만들어 슬로바키아인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시설에서 모임을 하게 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곧 적절한 모임 장소를 찾았고, 필요한 공간을 임대했습니다. 2011년 12월 11일, 첫 모임이 새로운 시설에서 열렸습니다. 세필드 제1와드 지도자들은 잘하면 50명 정도 참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슬로바키아인 63명을 포함하여 총 84명이 참석했습니다.

세필드 스테이크를 재조직한 뒤에 로버트 맥기웬 형제가 세필드 제1와드 감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틀쉽 형제는 선교 책임자로 계속 봉사했습니다. 두 감독 아래서 와드 선교 책임자와 와드 평의회는 와드가 힘을 모아 슬로바키아 성도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힘을 복돋아”(교리와 성약 20:53) 이끄는 놀라운 일을 잘 수행했습니다.

와드 평의회는 새로운 회원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방법, 그들이 와드 활동에 완전히 참여하도록 돕는 방법, 복음 안에서 그들을 양육하는 방법,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 방법 등 여러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평의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하늘의 도움을 받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회원을 방문해서 전임 선교사들과 함께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교통편을 제공했습니다. 슬로바키아어로 된 교회 자료를 주문했고, 새로 침례 받은 회원들을 성전으로 데려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게 했습니다.

와드 지도자들은 성탄절 봉사 활동도 계획했습니다. 와드 회원들은 기금을 내고 장난감과 의류, 다른 선물을 모았습니다. 성탄절 저녁 식사에 쓸 음식을 담은 성탄절 대형 선물 가방을 성탄절 전야에 슬로바키아 성도들과 와드 경계 안에 있는 다른 여러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래된 회원들과 새로운 회원들은 서로의 말을 조금밖에

**오른쪽: 세필드의 슬로바키아 그룹 지도자인 파로 던카 형제가 성찬식에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있다. 이 그룹은 2013년 3월에 지부로 조직되었다. 맨 위 삽입 사진: 와드 평의회에 참석한 세필드 제1와드 지도자들. 맨 아래 삽입 사진: 한 자매가 성찬식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말 속에 담긴, 진정한 사랑이라는 온정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회원들과 구도자들의 마음은 기쁨과 행복, 유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다음 해에도 여러 가족이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 작은 그룹은 건실한 교회 단위 조직으로 발전했습니다. 아버지들은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에, 아들들은 아론 신권에 성임되고, 20명이 넘는 어린이들로 초등학교가 조직되었으며, 청남과 청녀 프로그램이 조직되어 현재 25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매주 참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슬로바키아어를 구사하고 이 그룹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임 선교사들이 체코 공화국에서 부름받게 하셨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들 가족들은 고국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 기적의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충실한 선교사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았기 때문입니다.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이 신앙을 행사하고 성신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와드 평의회가 책임을 받아들이고 단합해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회원들이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지도자들의 권유에 따라 행동하고,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나는 …… 기적의 하나님이니,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을 두고 동일함[을] …… 세상에 보일 것임이니라”(니파이후서 27:23)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필드에서 거둔 성공이 1회성 결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선지자들께서 주신 약속을 상기시켜 주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권유하여 하나님의 손에 놓인 도구가 되려는 우리 소망과 우리 신앙을 더 밝게 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활동을 촉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므로써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



## 주님을 위해 일하게 되어

**남**편 사이러스와 나는 2006년 5월 23일에 성전에서 결혼했다. 결혼 전부터 연구실에서 일하던 남편은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했다. 남편은 일정이 바뀌긴 했지만 대개 자정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일했다. 남편은 근무가 끝나면 집에 와서 유니폼을 안식일 복장으로 갈아입고 9시에 시작하는 교회로 곧바로 갔다. 남편의 이 일정은 우리가 결혼한 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때때로 남편이 직장에서 늦게

돌아오면 나는 혼자서 교회에 갔다. 우리 부부는 남편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기를 언제나 바랐다. 2006년 6월 첫 번째 일요일에 우리는 결혼 후 처음으로 같이 금식했다. 우리는 남편이 일요일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신앙으로 기도했다.

며칠 후, 보통 아침 8~9시 사이에 집에 도착하던 남편이 10시가 되어도 오지 않아 남편의 행방이 궁금했다. 갑자기 '남편이 승진했는지 몰라.'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은 11시쯤

집에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나쁜 소식부터 말해 달라고 했다. 남편은 우리가 곧 필리핀 일리간을 떠나 필리핀 파나이 섬으로 이사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우리 스테이크 회원들을 좋아했기에 첫 번째 소식은 달갑지 않았다. 그 동안 근처에 친인척 하나 없이 우리만 이 지역에 지내는 것을 안 스테이크 회원들은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고 가족처럼 대해 주었다.

왜 파나이 섬으로 가야 하나고 묻자 남편은 좋은 소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회사 사장님은 파나이 섬의 다른 업무 때문에 남편과 면담했다. 나는 남편의 월급에 대해 묻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일요일에 일을 해야 하는지 묻었다. 남편은 "아니!" 하고 대답했다. 나는 정말 행복했다. 남편을 부둥켜안고서 새로운 직장이 우리 기도와 금식에 대한 답이라고 말해 주었다. 두 달 후 남편은 파나이 섬에서 새 일을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가 신앙을 행사하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때 축복해 주신다. 기도와 금식의 원리에 감사드린다. 남편의 직장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다. 이제 남편은 와드에서 부름을 영화롭게 할 시간도 생겼다. 남편이 일요일에 하는 유일한 일은 주님의 일이다. ■

메리 제인 루미바오 수야, 필리핀

**때**때로 남편이 직장에서 늦게 돌아오면 나는 혼자서 교회에 갔다. 우리 부부는 남편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기를 언제나 바랐다.



## 영원한 가족

**나**는 열아홉 살 때 에콰도르로 3개월짜리 인도주의 봉사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뵈었다. 할아버지는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원에 머물고 계셨다. 고령이신 할아버지는 다른 신체 질병과 더불어 치매까지 앓고 계셨다.

가족과 함께 요양원에 갔을 때 나는 시무룩해졌다. 할아버지를 뵈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가고 없는 사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리라는 것을 알았던 나는 떠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이 들었다.

병실에 들어서기 바로 직전에 직원 한 분이 할아버지를 휠체어에 앉혔다. 우리는 휠체어를 타신 할아버지를 요양원의 대기실로 모셨다. 어머니가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동안, 열여섯 살인 여동생과 나는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아버지는 예전과 다르셨다. 치매로 정신 상태가 악화된 것이 분명했고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께 손자 손녀가 몇 명이냐고 여쭙자 할아버지는 틀린 대답을 하셨다. 우리는 손자 손녀의 수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놀렸다.

할아버지를 보니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때 혼란스러워하시고 우리 질문에 틀리게 답하시던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닌가. “영원한 가족.”

나는 깜짝 놀랐다. 근처에 있던 직원은 할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으나 나와

여동생은 놀라서 서로 쳐다보았다. 우리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다. 할아버지는 “영원한 가족”이라고 재차 말씀하셨다. 이번에는 어머니도 들으셨다.

그날 할아버지를 방문하면서 있었던 다른 일들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요양원에서 나오면서 슬픔과 기쁨으로 흐느낀 일만 생각한다. 그분을 뒤로 한 채 떠나야 했고 또 이생에서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기에 슬펐고, “영원한 가족”이란 이 단순한 말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자비와 내 가슴 한 켠에 남은 평화로 나는 기뻐다.

악화되는 정신 문제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께서는 가족이 영원하다는 강한 확신과 지식을 마지막까지 나누셨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나는 곧 인도주의 봉사 여행을 떠났다. 돌아오기 일주일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평온함을 느꼈다. 언젠가 그분을 다시 보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고, 또 지금도 알고 있다. 성전 의식 덕분에 가족은 영원할 수 있다. ■

컬리 에이치 머드로우, 미국 유타



**할**아버지는 예전과 다르셨다. 치매로 정신 상태가 악화된 것이 분명했고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았다.

## 이쪽으로 오실 수 없습니다

**내** 남편 존은 덩치가 아주 큰 사람이었다. 키가 190센티미터이고 몸무게는 91킬로그램이 넘었다. 남편이 비행기를 탈 때 이코노미 좌석은 잘해봤자 불편하고, 못하면 고통스럽기까지 했다.

2006년 8월, 우리는 브리검 영 대학교 하와이에 있는 교회 교육 기구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다. 문득 집으로 돌아올 무렵 남편이 다시 본토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쫓겨야 할 일들을 생각하니 끔찍했다. 수속 절차를 밟는

동안 우리는 일등석에 자리 하나가 남은 것을 알고 기뻐했다. 그래서 남편의 표를 일등석으로 바꿨다. 그제서야 비행 때 편안하게 다리 뻗을 공간이 충분해진 것이다.

이륙 후 얼마 정도 지나서 나는 남편이 잘 있는지 확인해 보러 가기로 했다. 일등석 좌석에 가려 하자 승무원이 일어나서 입구에서 저지했다.

“무얼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네, 남편을 잠시 보려고 하는데요.”라고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이쪽으로 오실 수 없습니다.” 상냥하지만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이는 제 남편인데요. 그리고 잠시만 보면 됩니다.”

여전히 입구에서 꼼짝하지 않던 그녀가 재차 말했다. “죄송하지만 손님께서는 이쪽으로 오실 수 없으십니다. 남편분께 말씀을 전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남편분께서 원하시면 만나러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일등석 승객만 이 구역에 오실 수 있습니다.”

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승무원의 단호함을 보고는 조용히 이코노미 좌석으로 돌아갔다.

경전에 나오고 또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세 영광이 생각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께서 달의 왕국에 있는 이들을 방문하실 것이며(교리와 성약 76:77 참조) …… 천사들이 별의 왕국을 방문하지만(교리와 성약 76:88 참조) 이들은 절대 해의 왕국으로 갈 수 없다.(교리와 성약 76:112; 교리와 성약 88:22~24) 이 일을 돌아보면서 나는 더 낮은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가를 하는 생각을 잠시나마 해 볼 수 있었다. “죄송하지만 여기에 올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약 5개월 후, 남편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비행기에서 한 경험은 적어도 휘장 저편에서는 그 말을 다시는 듣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  
보니 마셜, 미국 유타

**일** 등석 좌석에 가려  
하자 승무원이  
일어나서 입구에서  
저지했다.





## 행복은 돈으로 얻는 게 아니지

**최** 근에 직원들 급여를 지급할 돈을 찾기 위해 은행에 갔을 때였다. 은행 직원이 인출 금액을 내주기 전에, 나는 200솔짜리 지폐 몇 장을 내밀며 50솔짜리로 바꾸어 달라고 했다. 은행원은 50솔짜리로 바꾸어 주었으나 나는 그가 돈을 셀 때 실수하는 것을 본 것 같았다.

50솔짜리 돈다발을 받고 나서, 나는 다시 뒤로 물러서서 인출 금액을 기다렸다. 기다리면서 나는 돈을 세었다. 나는 그에게 1,200솔을 주었지만 그는 내게 2,200솔을 주었다. 1,000솔을 더 준 셈이다. 순간 나는 유혹을 받았다. 나는 속으로 은행에는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며 돌려 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잠시 후 은행 직원이 거래를 마치기 위해 나를 불렀다. 그는 출금액을 세어 본 후 돈을 건네며 “또 도와드릴 것이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나는 “네, 있어요.”라고 대답했다. “아까 1,200솔을 50솔짜리 지폐로 바꿔 달라고 드렸는데 2,200솔이나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2,200솔을 건넸다. 그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두 번이나 돈을 세었다. 그는 자기가 본 것이 믿기지 않는 눈치였다. 나를 보고 뭔가 말하려고 했으나 그저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말만 간신히 두 번

되풀이했다.

나는 행복한 마음으로 은행을 떠났다. 마침 그때는 청남들에게 유혹을 극복하는 것에 관한 공과를 앞두었던 주였다. 청남들에게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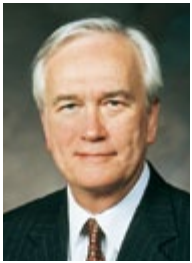
일부 청남들은 “농담이시죠?”라고 짓궂게 물었다. “1,000솔이나 되돌려 주신 거예요?”

“행복은 돈으로 얻는 게 아니지.” 나는 웃으며 답했다.

이 경험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 경험은 유혹에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관련하여 나의 신앙과 청남들의 신앙을 강화시켰다. ■  
아벨리노 그란데즈 카스트로, 페루

**○** 은행원은 내게 2,200솔을 주었다. 1,000솔을 더 준 셈이다. 그 순간 나는 그 차액을 그냥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키스 케이 힐비그 장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철십인으로 봉사함

# 영원을 위해 사십시오

미래에 해의 왕국에서 가족과 함께 영원히 거할  
날을 자주 머릿속에 그려 보십시오.

**두** 세 세대 전의 젊은이들이 살았던 세상과 비교해 보면  
현재의 젊은이(기혼이거나 독신이거나)들이 사는  
세상은 얼마나 많이 달라지고 더 어려워졌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시련은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없었거나 그리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쨌거나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든 분들은 하늘나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은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연이 아니라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계획되고 동의되고 실행된, 영원한 계획에  
따라 지금 이 시기에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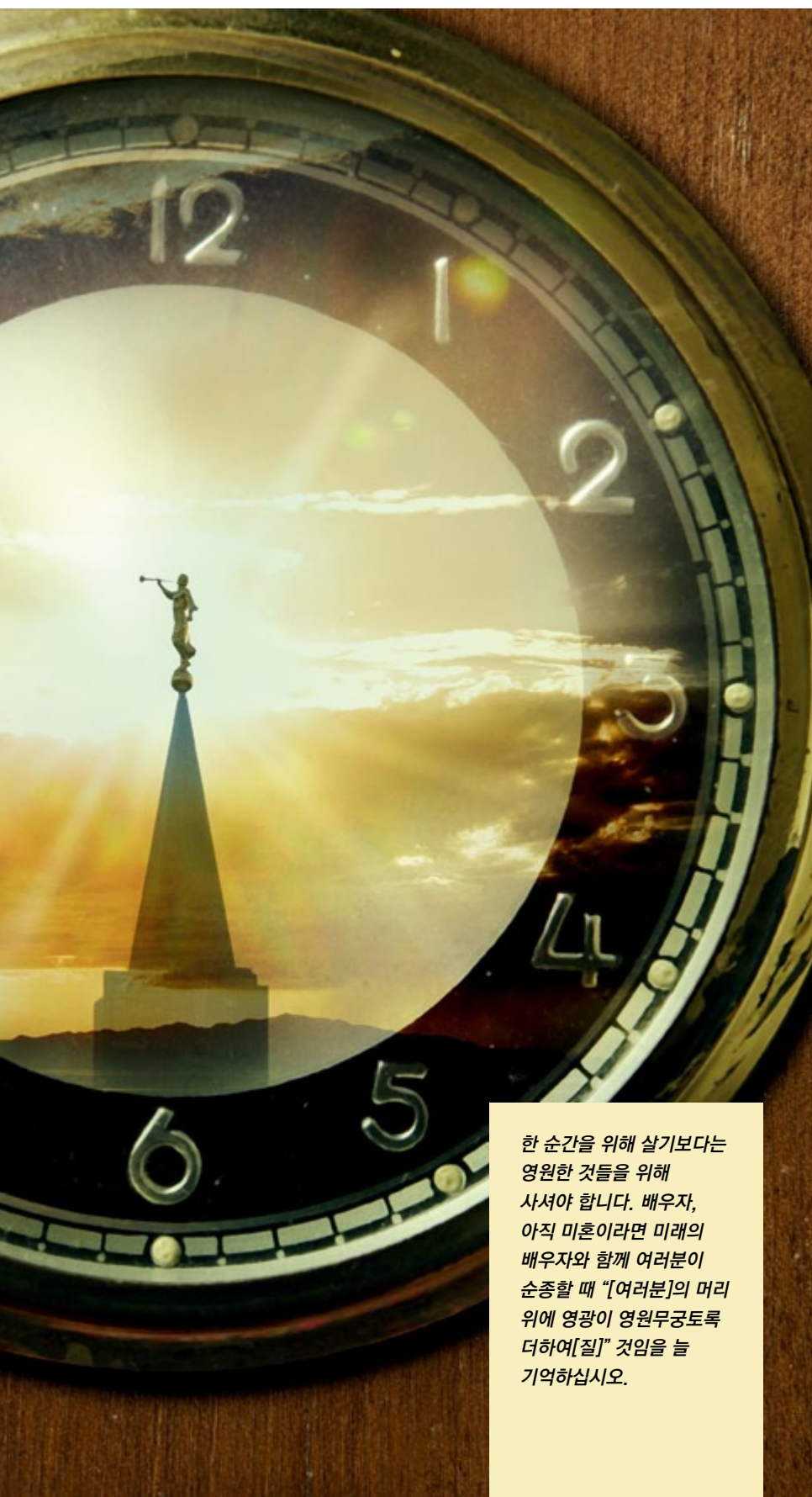
복음의 회복에 대해 아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전세가  
있었음을 압니다. 여러분은 교육받고 시험받았습니다. 발전하고  
전진하게 해 주는 율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그 율법을  
따랐기에 이 지상으로 오는 자격을 받았으며, 그것으로 승영,  
다스림, 신회로 향하는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상에서 살아가는 필멸의 삶의 목적을 이해하며  
죽은 후에 받을 기회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간단히 말해,  
여러분은 영원에 관한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뒤를  
돌아보거나 앞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 아닌 여러분 또래의  
젊은이 대부분과 보통의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을 거의 알지



심화: 데이비드 스토키



한 순간을 위해 살기보다는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사셔야 합니다. 배우자, 아직 미혼이라면 미래의 배우자와 함께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의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더하여[질]" 것임을 늘 기억하십시오.

못합니다. 그들은 탄생 아니면 죽음이라는 세상에서만 사는 듯합니다. 제한된 시각으로 규정된 행동을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사실 그들은 순간을 위해 삽니다. 삶과 죽음 사이의 시간은 영원이란 시간에 비해 정말 눈 깜짝할 순간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전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영원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 여러분의 영원한 잠재력

하지만 여러분은 영원 안에서 자신의 잠재력에 관해 주어진 약속을 압니다. 성전에서 인봉된 부부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첫째 부활에 나아올지니라. …… 왕위와 왕국과 통치권과 권세와 주권과 모든 높음과 깊음을 상속할지니라 …… 만일 너희가 나의 성약에 거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 살인을 범하지 아니하면, 나의 종이 그들에게 부여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현세에서나 모든 영원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요, 또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완전한 효력이 있어, 그 곳에 배치된 천사들과 신들 곁을 지나가서 그들의 머리에 인봉된 대로 온갖 일에서 그들의 승영과 영광에 이르리니, 그 영광은 영원무궁하도록 자손이 충만하고 계속되는 것이니라.

그때에 그들은 신이 되리니, 이는 그들에게 끝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리니, 이는 그들이 계속됨이라. 그때 그들은 만물 위에 있으리니, 이는 만물이 그들에게 복종함이라. 그때 그들은 신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권능을 가졌고 또 천사들이

그들에게 복종함이라”(교리와 성약 132:19~20)

미래에 해의 왕국에서 가족과 함께 영원히 거할 날을 자주 머릿속에 그려 보십시오. 그 상태는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광스럽고 평안할 것입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 “첫째 지체”(아브라함서 3:26)를 지켰으며, 전세에서 모든 시험을 통과했고, 큰 신앙을 행사했기에 필멸의 육신을 받고 이 필멸의 삶으로 오는 영광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 순간을 위해 살기보다는 영원을 위해 사셔야 합니다. 배우자, 아직 미혼이라면 미래의 배우자와 함께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의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더하여[질]”(아브라함서 3:26) 것임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 각자에게 주신 이 약속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킨다면 그분의 약속은 남김없이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인류 영혼의 대적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인간함을 쓴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시야는 가려질 것입니다.

기독교계 신학자들과 이론가들은 영원한 것에 관해 여러분이 아는 바를 알지 못하나 사탄은 압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전세부터 준비해 왔으며 지상에서 여러분이 목적하는 바와 더 나아가 영원한 잠재력까지도 잘 압니다.

히브리어에서 악마(devil)라는 단어는 “망치는 자”<sup>1</sup>로 해석됩니다. 악마는 영생으로 향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선한 것과 악한 것 사이에서 옳은 것을 주실 뿐 아니라 악한 것 대신 선한 것을 선택할 힘도 주셨습니다. 결국 결정은 사탄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여정을 망치려 합니다. 그는 이생과 다음 생에서 여러분의 잠재력을 막으려 합니다. 여러분이 현명하지 못하게 선택의지를 행사하도록 유도합니다. 독립성을 열렬히 주창하는 어떤 젊은이들은 어떤 잘못된 것을 선택할 때에야 자신의 독립을 제대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어느 바보라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어느 무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독립성, 진정한 자유는 언제나 옳은 것을 선택할 때 제대로 표출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과 악한 것 사이에서 옳은 것을 주실 뿐 아니라 악한 것 대신 선한 것을 선택할 힘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탄과 그의 무리보다 더 큰 힘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국 결정은 사탄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시험받고 악을 극복해야 한다는 중요한 목적을 위해 이 필멸의 경험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시련과 유혹을

계획하지는 않으셨지만 필멸의 삶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임을 아십니다. 그분은 지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육에 속한”(모사이야서 3:19) 자신을 극복하고, 우리의 세상적인 면을 부인하며 합당함을 증명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십니다. 사탄은 여기에 반대합니다. 우리의 발전을 막으려고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 세상의 유혹

사탄의 교활하고 사악한 지원과 부추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유혹을 받아들이고 균중과 어울리며 순간의 쾌락을 즐기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부적절한 영화나 비디오 게임, 부도덕한 행위(외설물 포함), 육설, 선정적인 옷차림, 부정직의 형태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탄은 가족에 대해 성스럽게 계획된 것, 즉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며 자녀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양육될 권리를 지닌다는

사실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애쓸 것입니다.<sup>2</sup>

잠깐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루시퍼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축복들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영원한 발전을 할 수 없습니다. 간중으로 싸웠던 천국 전쟁에서 그가 패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요한계시록 12:11 참조) 그 전쟁에서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랐던 이들이 사탄과 그의 지지자들을 물리쳤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하나님 자녀 가운데 사탄을 따랐던 1/3은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육신이나 영생활 기회를 절대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들 야곱에게 리하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 리하이는 내가 읽은 바에 따라, 이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나니, 곧 기록된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타락하였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악마가 되었나니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을 구하였음이라.

이에 그가 하늘에서 타락하여 영원토록 비참하게 된지라, 그가 또한 온 인류를 비참하게 하고자 하였느니라.”(니파이후서 2:17~18)

리하이는 또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한즉 육체로 말할진대 사람은 자유로우며, …… 또 그들은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의 사로잡힘과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나니, 이는 그가 만인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니파이후서 2:27)

우리 시대에 마약상, 외설물 배포자, 사악한 유혹을 조장하는 자, 거짓말을 지지하는 자, 부적절한 의상을 홍보하는 자, 부도덕을 조장하는 자,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비난하는 자들은 영적인 삶을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영적으로 사망하게 할 선택을 부추기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그러한 유혹에 넘어간 이들의 불운을 비웃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모세서 7:26 참조) 그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불순종하게 하고, 그것으로 축복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 순종에서 오는 축복

순종은 축복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 큰 일을 하라는 유혹이 강했음에도 옳은 것을 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렸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것은 부적절한 생각을 지우겠다고 결정하고, 또는 거짓말 하는 게 훨씬 쉬운 상황이었음에도 진실을 말하겠다고 결정했을 때였을 것입니다. 관람 가능 등급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부적절한 영화일 때 일어나서 영화관(혹은 다른 신성하지 못한 곳)을 나가야겠다고 결정했을 때였을 것입니다.

### 핵심 교리

후기 성도들은 회복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안다.

- 하나님 아버지는 순종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 사탄은 온 인류를 비참하게 만들고자 한다.
-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혹을 극복할 힘을 갖고 있다.

여러분이 내렸던 올바른 결정을 뒤돌아보았을 때 어떤 기분이 됩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극기의 힘을 받았다는 느낌이 됩니까? 주님 앞에서 자신감이 커집니까? 악을 저지할 능력이 커집니까? 그것이 힘이자 자유입니다!

계속해서 유혹을 물리친다면 그렇게 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유혹의 속성이 변한다기보다는 유혹을 극복할 여러분의 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sup>3</sup>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떤 유혹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고린도전서 10:13 참조)

여러분은 자신의 고귀한 혈통에 대해 압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고귀한 운명을 충분히 압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성을 높이[고]”<sup>4</sup> 순간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 사십시오.

훌륭한 성인이자 하나님 왕국과 사회의 미래 지도자로서 여러분은 이 끝없는 싸움에서 패배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 전쟁에서 승리했기에 여러분은 지상에서 벌이는 이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순간이 아닌 영원을 위해 사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받게 될 보상은 해의 왕국의 가장 높은 등급,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2007년 3월 20일, 브리검 영 대학교-아이다호에서 전한 영적 말씀에서 발췌 영어로 된 전문은 [web.byui.edu/devotionalsandspeeches](http://web.byui.edu/devotionalsandspeeches)에서 볼 수 있다.

### 주

1. 경전 안내서, “악마”.
2.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야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참조.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허버 제이 그랜트(2002), 115쪽 참조.
4. 고든 비 힐클리, “각자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리야호나, 2002년 11월호, 99쪽.



신구자적인 행동. 데이비드 린치 (Lynch)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 무한한 신뢰를 경험하며

멀리사 젠테노  
교회 잡지

**부** 모님이 이혼하신 것은 클레어(가명)가 여섯 살 때였다. 그후 클레어는 많은 사람이 결혼 생활에서 실패하고, 가족들이 중독 문제로 힘들어하며, 교회에서 저활동되거나 우울증을 겪는 것을 보아 왔다. 슬프면서도 혼란스러웠던 클레어는 가족과 관련하여 자신감을 잃었다.

클레어는 이렇게 말한다. “결혼이 제게는 맞지 않다고 말했죠. 사실은 제가 경험한 일이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애써 감추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클레어는 자기 가족의 상황이 고통스러웠고, 또 외로웠다. 십 대 시절에 클레어는 어느 날 절박감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가 과연 존재하시는지를 알고 싶어했다. “눈물을 멈추고 입을 다물었을 때 저는 평화를 느꼈고, 강하지만 아주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타는 듯한 느낌으로 압도되었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며, 저를 늘 사랑하시고 시련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클레어가 받은 대답은 하나님과 가족에 대한 그분의 계명을 믿는 신뢰와 간증을 키우겠다는 소망을 싹트게 했다. 클레어는 계속 기도했을 뿐 아니라 경전을 읽고 세미나리에 참석하며 계명을 지켰다.

이제 클레어는 결혼했으며 신앙으로 시련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저는 강한 가족을 꾸려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편과 저는

언제나 간증을 키우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를 삶에 포함시키고, 부정할 수 없는 이 복음 진리를 기억하자고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클레어는 단순하지만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뢰를 쌓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시련을 겪는 전 세계 젊은이들은 주님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그분의 뜻, 방법, 시기에 의존하는 법을 어떻게 배웠는지에 관한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 항상 감사한다

독일 헤센에 사는 스테파니 에글리는 자신의 축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그분이 정하신 때를 신뢰하게 되었다.

좋은 친구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지 못했던 스테파니는 자신의 축복을 글로 적어 보기 시작했다. “함께 데이트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언제나 우리 관계가 좀 더 진지해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자 친구가 생겼다고 말했다고 했을 때 제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죠.”

비탄에 잠긴 스테파니는 *리아호나*에서 감사에 관한 기사를 읽고 위안을 찾았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축복받았는지 적어 보라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독신인 상태가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 말이다.

그녀가 적은 목록은 자신이 결혼할 기회가 없었다고 해서 축복까지 거부당한 것은 아님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었다. 스테파니는 주님께서 그녀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 어린이들을 돌볼 기회를 축복으로 주셨음을 깨달았다. 스테파니는 여행을 하고 연차 대회에 참석하며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프로그램 고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또 청년 독신 대회에 참가해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우정을 쌓기도 했다.

하지만 스테파니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형제자매들과 사촌들은 각자 돌봐야 할 가족이 있거나 너무 멀리 살아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스테파니가 자신의 축복에 대해 적기 시작한 지 5년이 흘렀다. 그녀는 여전히 성전 결혼을 기다리고 있다. 스테파니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영원한 동반자를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오리라고 믿어요. 그때까지 저는 제가 배우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경험들을 계속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녀를 많이 축복하셨으며, 스테파니는 자신이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해 주실 것임을 안다.

####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다

미국 콜로라도에 사는 다니엘 마추셀로는 마지막 이혼 절차를 밟았다. 그는 이 낮은 상황에서 평화를 느끼기가 어려웠다. 이제는 결혼한 상태도 아닐 뿐더러 홀아비였다 실직까지 하게 된 것이다. 그는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특히 그는 늘 의로움을 추구해 온 사람이었다.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낀 다니엘은



이것들을 기억하라, 데이비드 린, 복사 금지

경전을 폈다. “저는 과거에 경전을 읽으면서 위안을 느꼈던 것이 떠올라서 매일 경전 읽기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경전을 읽을 시간을 내는 것은 텔레비전과 인터넷 같은 오락물에 쏟는 시간을 줄인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것은 희생이 아니었다고 다니엘은 말한다. “저는 경전을 읽으면서 위안과 인도를 받았어요. 다른 것들은 중요성 면에서 부차적인 것이 되었죠. 저는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목적을 두고 읽었죠.”

다니엘은 모두가 시련을 겪는다는

것을 깨달으며 경전에서 위안을 찾았다. “선지자와 다른 사람들은 의로웠지만 시련을 겪었어요. 그들의 경험을 읽으면서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 모두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더하여 매일 경전을 읽으면서 다니엘은 자신의 짐이 가벼워졌다고 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주를 매일의 삶에 포함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읽은 구절들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그분의 도움으로 뭔가 좋은 것을 이 경험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는다

타이완 가오슝에 사는 포 니옌은 여자친구 메이 와에게 청혼한 후 두려움이 들었다. “전에 교제한 사람은 세 명이 있었는데, 진지한 관계였다가 헤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 경험들 때문에 영원한 결혼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흔들렸어요.”

포 니옌은 메이 와와 결혼하는 것에 관해 기도했을 때 평화를 느꼈으나 자신이 받은 응답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영의 확신을 느꼈는가? 내 감정 때문에 착각한 건 아닐까?

이 약혼은 성전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관계도 깨지게 될까?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포 니옌은 종교 교육원 수업에서 들은 에즈라 테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의 다음 말씀을 기억했다. “우리는 생활에서 하나님을 그 밖의 모든 것보다 앞세워야 합니다. ……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앞세울 때, 다른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찾아가거나 우리 삶에서 해결됩니다.”<sup>1</sup>

이 권고는 포 니옌의 삶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저는 하나님을 제 삶에 우선으로 두고 그분께 충실하고 참되다면 나쁜 일들은 사라지고 좋은 일들이 생길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메이 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일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실 것이었다. 신뢰하며 전진해 나간 포 니옌은 중국 홍콩 성전에서 메이 와와 결혼했다. 그는 “저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라고 말한다.

### 그분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신뢰를 쌓는 또 다른 방법은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스페인 타라고나에 사는 마르타 페르난데즈 레볼로스는 자신의 표준을 유지하겠다고 선택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자신과 데이트한 청년은 교회 회원이 아니었고 교회에 들어올 생각도 없었다. “제 영혼은 영원한 결혼에 대해 배웠던 것과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사람과 이생만을 위한 결혼을 하라는 수많은 변명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몇 달간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죠. 많이도 울었어요.”

어찌할지 몰라 괴로워하던 마타는

방으로 가서 축복사의 축복문에서 인도를 구했다. 그녀는 옳은 것을 선택할 때 받는 약속에 대해 읽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 “결별의 결과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저는 제가 주님의 편에 설 때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우리가 비전을 세우고 성신의 속삭임을 따를 때 의로움의 결과가 ‘지극히 감미로워 [우리]가 이전에 맛본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감미로울’”(니파이전서 8:11) 것임을 알게 되었죠.”

잠언 3장 5~6절에는 이렇게 나온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에 대한 신뢰를 쌓아 가는 것이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다. 우리 각자 나름대로 시련을 겪는다. 여러분은 와드나 지부에서 적절한 사람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다. 결혼은 했을지 모르나 자녀가 없을 수도 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과거의 경험 때문에 약속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시련을 아시며 자신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평화와 인도가 찾아올 것이다. ■



### 하나님을 강하고 지속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이생은 심오한 신뢰,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그의 가르침에 대한 신뢰, 성신에 인도되어 현세와 영원을 위한 행복에 관한 가르침에 순종할 때의 우리 능력에 대한 신뢰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결과를 알지 못하지만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잠언 3:5~7 참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감정과 경험에 대한 자신감

이상으로 더 강한 인내심을 갖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그분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님을 신뢰함”, 리야호나, 1996년 1월호, 15쪽.

주

1. 에즈라 테프트 벤슨, “큰 계명—주님을 사랑함”, 성도의 빛, 1988년 7월호, 4쪽.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연민을 갖고 판단함

우리가 사람들과 상황을 대하는 방식에는 우리의 종교적 믿음과  
복음에 대한 결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연**젠가 저는 한 스테이크에서 독신 성인을 위한 영적 모임에 연사로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스테이크 센터의 뒷문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한 30대 여성도 거의 동시에 그 건물로 들어왔습니다. 예배당으로 몰려드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그 여성은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녀는 문신도 하고 귀걸이와 코걸이를 요란하게 하고 형형색색으로 물들인 머리카락을 고슴도치처럼 세우고, 치마는 아주 짧고 웃웃은 매우 단정하지 못하게 보였습니다.

이 여성은 복음을 통해 삶에서 필요한 평안과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려는 노력으로 누군가가 주님의 인도 아래 참석을 권유했거나, 아니면 회원이 동행하여 이 영적 모임에 데려온 방향하는 영혼일까요? 아니면 교회 회원인데, 비록 교회가 회원들에게 바라고 권장하는 표준에서 멀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어떤 끈이 남아 있어서 그날 밤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로 한 것일까요?

사람들이 그 젊은 여성을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우리의 종교적 믿음과 복음에 대한 결심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대응하는 방식은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는 개선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경우에 그녀가 범한 것보다 더 큰 반칙을 저지르는 방식으로 반응하거나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생각도 없고, 표준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신성하게 규정된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을 생활 속에서 완전히 무시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런 표준에 따라 생활하고,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을 의로운 방법으로, 그것도 최선을 다해 구주께서 생활하신 방식과 옹호하신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진리를 가르치고, 죄인을 용서하고,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등 언제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할 줄 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사입니다!

유별난 옷과 차림을 한 낯선 여성을 보게 되는 경우 우리는 그녀가 하나님의 딸이며 또 영원한 가치를 지녔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가 이곳 지상에서 누군가의 딸이며, 어찌면 여건만 바뀌었다면 내 딸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부터 해야 합니다. 그녀가 교회 모임을 피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교회에 있다는 사실에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가장 좋은 상태가 되도록 도우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상황과 그녀를 개선하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구주께서 하실 만한 일을 하려고 실제로 노력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요한복음 7:24)는 말씀의 참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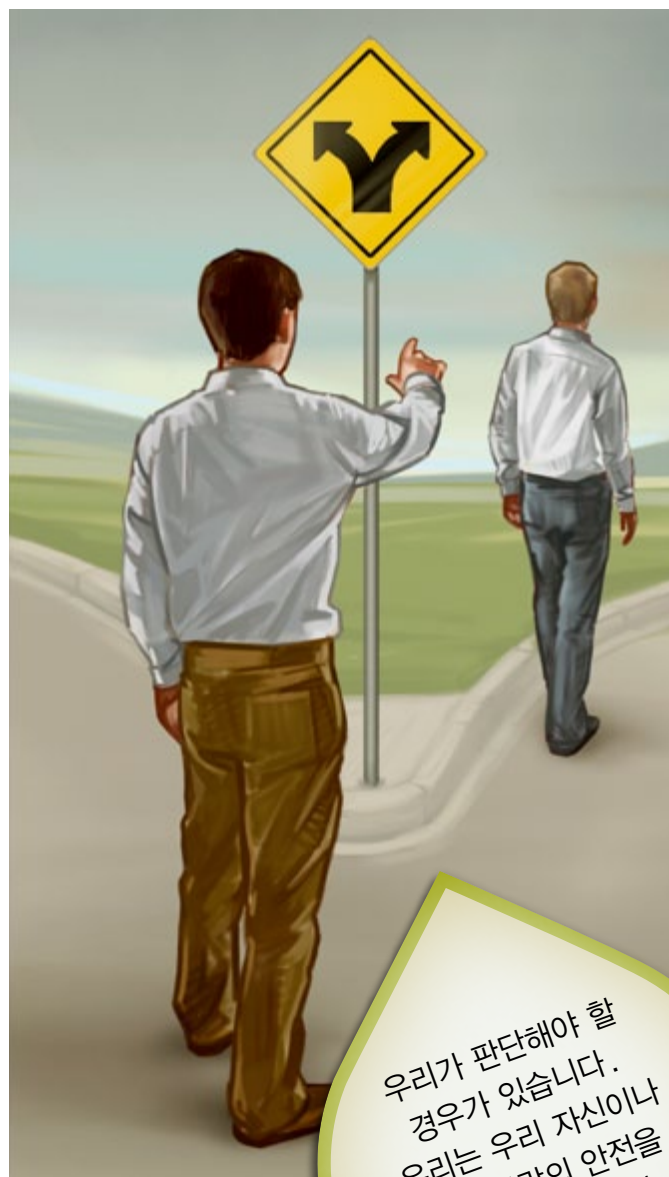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우리가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서 돌아오도록 도와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아흔아홉 마리의 양에 대해서도 막중한 책임이 있으며, 그것이 목자의 바람이자 염원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립니다. 양 우리가 있고, 우리 모두가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곳에 있으면 안전과 축복이 따릅니다.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교회는 사회적 친선이나 정치적 편이나 그 밖의 어떤 것에 따라 교회 교리를 바꾸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을 돕기 위해 받을 디딜 수 있는 곳은 계시된 진리라는 안전한 발판뿐입니다. 우리 기독교 정신의 기본적 특성과 요건인 동정심과 사랑이 계명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해석되는 일이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훌륭한 조지 맥도널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모두 말해야 할 책임은 없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할 책임은 있습니다.”<sup>1</sup>

#### 우리가 판단해야 할 때

동정심을 지니면서 또한 계명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떤 것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어떤 형태의 가치 판단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오해가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아마도 여러분 연령이나 더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마태복음 7:6)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하고 또 판단할 책임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면에서 서로 도와야 합니다. 저는 구주께서 하신 그 말씀이 하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 이론에서 강력히 주장하듯이 영원히 참된 것이나 특히 성스러운 것은 결국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쟁점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도덕적 상대주의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이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런 평가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판단을 반영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훌륭하게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이런 종류의 판단을 “중간 판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종종 이런 판단을 해야 하며, 이런 판단은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사실을 아는 이들만이 할 수 있는 “최종 판단”과는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종종 “중간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릅니다.<sup>2</sup> (앞서 인용한 성구에서 구주께서는 이런 중간 판단이 “의로운 판단”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자칭 의로운 판단이 아니며, 이들은 서로 매우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들이 뺨뺨 달리는 거리로 아이가 뛰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부모를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좀 더 자랐을 때 밤 몇 시에 귀가하는지, 자녀 친구들이 어떤 도덕 표준과 행동 표준을 지키는지, 몇 살에 데이트해야 하는지,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약물 또는 외설물을 접하는지 등에 관심을 갖는 부모가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리고, 입장을 취하며, 우리 가치관을 재차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간 결정”을 항시 내리고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택의지가 있지 않나요?”**

젊은이들은 이와 같은 교회의 이런 저런 입장이나 정책을 어떻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생활하거나 행동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선택의지가 없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판단하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을 강요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왜 어떤 원리를 지켜야 하고 어떤 죄를 반대하는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관련된 여러 쟁점과 법률이 비단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것만이 아니라 결과면에서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청소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난 이제 운전할 수 있어요.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차를 세워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판단을 내려서 빨간색 신호등일 때 다른 모든 사람에게 차를 세우도록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들이 빨간색 신호등에서 모두 차를 세우기를 바라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나아가 여러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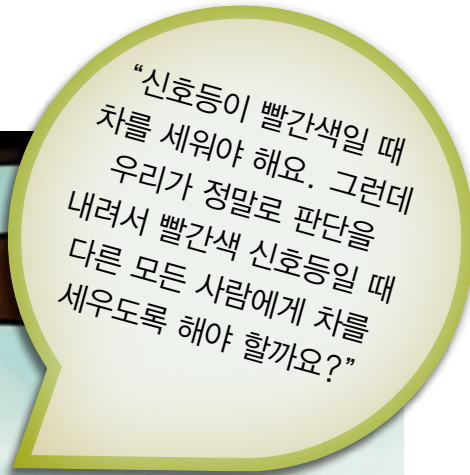
범법하거나 우리와 신념이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도덕적 선택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만나게 되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젊은 친구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믿음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도덕적 선택의지가 있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주제에 관해 침묵하시기도 하는 것처럼, 또는 그런 것에 대해 대중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계명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행동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조심스럽게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들과 그분이 주신 율법에 따라 도덕적 입장을 취하되, 이해심과 큰 사랑을 지니고 온정 어린 마음으로 행하면서 우리의 능력과 고결성을 몸소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죄와 죄인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하게 구별하거나 딱 부러지게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별로 없을 정도로 어렵긴 하지만, 우리는 애정을 기울여 죄와 죄인을 정확하게 구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

2012년 9월 9일에 전한 CES 영적 모임에서 발췌. 영어로 된 전문을 보려면 [cesdevotionals.lds.org](http://cesdevotionals.lds.org)에 접속하여 “Israel, Israel, God Is Calling”을 읽어 본다.

- 주
1. George MacDonald, *The Unspoken Sermons* (2011), 264.
  2. Dallin H. Oaks, “Judge Not’ and Judging,” *Ensign*, Aug. 1999, 6-13 참조.





데이비드 덕슨  
교회 잡지

거울 속에 비친  
그 사람을

# 용서하며

우리가 이미 회개했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믿는데도, 우리는 왜  
때때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걸까?

## 한 번에 한 걸음씩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에게 전기 불빛 없는 삶은 상상하기조차 힘들 것이다. 캄캄한 방은 스위치만 켜면 빛으로 금세 환하게 밝아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단한 일조차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어둡게 흔들리는 촛불 아래에서 해야 했었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성공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던 한 발명품 덕분에 그런 일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토머스 에디슨은 여러 해 동안 연구하고 1,000개 이상의 다른 물질로 실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적합한 필라멘트(전구 중심에 있는 가느다란 금속선)를 찾아내어 오래 지속되면서도 저렴한 빛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낙천주의자인 에디슨은 실패로 끝난 실험들을 성공으로 향하는 디딤돌로 보았다. 에디슨이 성공하자 세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 내면을 들여다보며

운동선수, 사색가, 예술가 등 실수로부터 배우는 법을 알고 계속 노력했던 사람들에 관한 영감 어린 일화가 무수히 많다. 계속 노력하라. 그러면 성공하리라!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너무나 자주 들어 왔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때로 나 자신이 되기도 한다.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너무도 많은 사람이 100퍼센트의 완벽함을 추구한다. 마치 원래 계획에 한 번도 수정을 가하지 않고 백만 달러짜리 발명품을 얻으려 한다든지, 혹은 시즈

내내 경기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최종 우승을 거두려 하는 것처럼 말이다. 죄를 지어 완벽해지지 못할 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한 노력을 포기하기도 한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주님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에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때때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며, 동시에 가장 용서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거울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sup>1</sup>

## 변화된 영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경의 선지자 중 한 명인 암몬의 삶을 들여다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레이맨인 사이에서 행한 암몬의 선교사 경험은 우리에게 영감을 줄 만큼 기적적이다. 왕의 양 떼를 지키는 일에서부터 라모나이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라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돕는 일까지 암몬의 인생과 성역은 모든 경전에서 매우 위대한 영감을 주는 이야기 중 하나이다.

하지만 그 암몬도 늘 의로웠다거나 언제나 권능으로 레이맨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만큼 신앙이 충만했던 것은 아니다. 그도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 모사이아의 아들인 암몬은 한때 “하나님의 계명[에] …… 반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며, 주의 백성을 길 잃게 하려고”(모사이아서 27:10) 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

암몬이 형제들과 엘마이세와 함께 하나님의 사업을 극심히 방해했기에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회개를 촉구하며 “우레와도 같은 소리로 말한지라, 그 음성으로 인해 그들이 서 있는 땅이 진동[할] 정도였다.”(모사이아서 27:11)

분명 암몬은 회개해야 할 심각한 범법을 저질렀으나 그는 회개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 늦어버렸다며 선교 사업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선교 사업을 포기했다면, 그는 몇 년 후에 형제들과 함께 레이맨인 사이에서 거둔 성공을 기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보라, 우리는 앞을 보고 우리 수고의 열매를 볼 수 있나니, 그것들이 적으냐?” 암몬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것들이 많으리라. 이뿐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형제에게와 또한 우리에게 향한 그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진실함을 증거할 수 있었음이니라.”(앨마서 26:31)



## 개선

칠십인인  
세인 엠 보웬  
장로는 속죄가  
어떻게 우리  
삶을 성결하게

하고 개선해 주는지에 대해 가르쳤다. “개선” 동영상은 [lds.org/pages/mormon-messages#reclaimed](https://lds.org/pages/mormon-messages#reclaimed)에서 볼 수 있다.



선교 사업에 쏟은 그들의 노고 덕분에 수천 명이 진리를 알게 되었다.

## 낙담이 가져오는 위험

교회 지도자들의 분명한 권고와 경전에 나오는 본보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속죄에서 제외되며 구원받지 못할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한 후에도 자신의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지 못한다. 노력조차 포기할지도 모른다.

‘결국 어차피 다시 타락할 텐데 굳이 일어설 필요가 있는가?’ 적어도 대적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이끈다. 그러한 생각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해가 될 뿐더러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경전은 우리에게 구주의 속죄가 무한하며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이사야 1:18)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절대 늦지 않았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관련해 분명한 권고를 주셨다. “너무 많은 기회를 이미 놓쳐 버렸다고 생각할지라도,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거나 가진 재능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혹은 가정과 가족과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는 곳에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이 무한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빛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떨어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sup>2</sup>

홀런드 장로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더 집중하라고 가르치셨다. “신앙을 발전시키는 방법은 그것을 지키고, 노력하고, 끝이 있음을 믿는 것이며, 마지막에 주어지는 후한 보상을 생각하면서 그 전에 겪는 괴로움을, 그것이 실제적인 것이든 가공의 것이든,



# 유성매직

테니 도너웨이 로완

실수의 자국이 영원히 남을 필요는 없다. 깨끗한 손을 갖는다는 건 고통이 뒤따른다 해도 가치 있는 일이다.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sup>3</sup>

## 희망으로 가득 차서

죄가 가볍게 사라질 수는 없으나 회개는 진실이다. 용서가 진실로 존재한다. 구주의 속죄는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준다. 암몬이 용서받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는 더 밝은 날들을 꿈꿀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다. “소망의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로마서 15:13)

회개라는 은사 덕분에 우리 모두는 자신을 다시금 믿을 수 있다. ■

주

1.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공혹히 여기는 자가 공혹히 여김을 받습니다”,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75쪽.
2. 제프리 알 홀런드, “포도원의 품꾼”,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33쪽.
3. 제프리 알 홀런드, “포도원의 품꾼”, 32쪽.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 주가 지나 대학교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여름 동안 누나의 가족과 함께 지내려고 동부 쪽으로 이사했다.

친구도 몇 명 사귀었는데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나보다 나이가 많았다. 어느 토요일 밤, 친구 두 명이 그 지역 클럽에서 연주하는 훌륭한 밴드의 공연을 보러 가기 위해 나를 데리러 왔다.

주차할 때 나는 기분이 약간 이상했으나 그날 저녁을 망쳐 버리고 싶지는 않았다. 우리는 클럽으로 들어갔고 바텐더는 내 운전면허증을 확인했다. 그런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바텐더는 내 양 손의 손가락 관절마디에 유성펜으로 검은색 선을 확 그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나는 깜짝 놀라서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그 클럽에서 술을 마시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내 손에 표시했음을 깨달았다.

나는 곧 마음이 불편해졌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 대고 있었다.

내가 그때 당장 일어나 떠날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다. 30분 후 친구 하나가 내게 괜찮냐고 물어봤다. 나는 시끄러운 음악과 담배 연기 때문에 두통이 생겼다고 말했다. 친구는 나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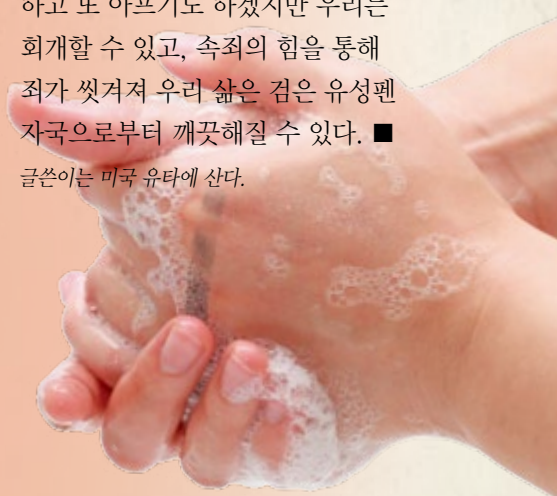
했고,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했다.

나는 누나네 집 화장실로 급히 들어가 관절 마디에 남아 있는 검은 유성펜 자국을 아플 때까지 문질러 냈다. 다음날 이 손으로 성찬을 전달해야 했기에 정말이지 다시 손을 깨끗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하지만 희미한 검은 선은 하도 문질러서 별장게 되고 껍질이 벗겨진 내 손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잠들기 전에 나는 당장 떠날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애초부터 그런 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에 대해 기도도 용서를 구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는 그런 상황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다음날 나는 유성펜 자국을 대부분 지울 수 있었고 성찬 전달을 했을 때 내 손은 거의 깨끗해져 있었다. 나는 죄가 이 검은색 유성펜 자국과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해 생각했다. 노력도 해야 하고 또 아프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속죄의 힘을 통해 죄가 씻겨져 우리 삶은 검은 유성펜 자국으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 정직과 고결성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이 보이는 속성을  
통해 드러냅니다.

크리스토펠 골든  
이세 장로  
칠십인 정원회



**조** 셉 비 위스린은 미식 축구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경기를 하던 중에 “정체성을 결정하는 경험”이란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줄 터치다운을 위해 필드 중간까지 공을 가지고 뛰어야 했습니다. 상대 수비수를 밀쳐 내며 선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저는 골 라인 가까이에 왔다는 것은 알았지만,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선수들 밑에서 꿈쩍 못하고 있었지만

몇 센티미터 앞으로 손을 내밀었고 라인을 건드릴 수 있었습니다. 골라인은 5센티미터 앞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공을 앞으로 밀고 싶은 유혹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 그러나 그때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조셉, 결과가 어떻게 되든 옳은 일을 하거라. 그러면 모든 게 잘 풀릴 거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터치다운을 절실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 눈에서 영웅이 되는 것보다는 어머니의 눈에서 영웅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칙을 하지 않고 공을 그냥 원래의 자리에 두었습니다. 골 라인을 5센티미터 앞에 두고 말입니다.”<sup>1</sup> 워스린(1917~2008) 장로님은 후에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봉사하셨습니다.

**옳은 일을 행하여**

워스린 장로님의 결정은 자신의 고결성을 굽히지 않는 사람의 훌륭한 모범입니다. 정직과 고결성은 우리 성품의 시금석입니다. 사람은 이런 덕성을 지닐 때, 어떤 상황에서든, 혹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언제나 옳은 일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표준 가운데 하나가 정직과 고결성입니다. 여러분은 후기 성도이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 항상 정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며 어떤 식으로든 부정행위를 하거나 속이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

고결성은 정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결성이란 결과가 어떻든 늘 의로운 것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고결하다면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에도 기꺼이 표준과 믿음에 따라 살 것입니다.”<sup>2</sup>

**제자가 되어 가며**

필멸의 삶이라는 이 시험의 상태 동안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모사이야서 3:19)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찌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며, 때로 이러한 노력에는 많은

것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는 보라,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하게 하였은즉,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판단하는 길을 보여 주노니, 무릇 선을 행하도록 권유하며, 권하여 그리스도를 믿도록 설득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사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완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모로나이서 7:16)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자신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느낌이 따를 것이며, 그 느낌대로 행동한다면,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분명한 확신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의 정직한 행동이 가져오는 참된 결과와 축복이 무엇인지 보려면 얼마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완전하게 정직하려면**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부정직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거짓말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가게에서 물건을 몰래 들고

**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살아 있는 선지자의 가르침을 적용한다면 우리 안에 정직과 고결성이 쌓여 갈 것입니다.**

나오거나 시험 때 부정행위를 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을 해치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악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직하면 성신의 인도를 받는 능력과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sup>3</sup>

참된 고결성과 완전한 정직의 참된 잣대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말, 행동을 보는 사람이 주위에 없을 때에도 과연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는 구주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보다 못한 사람이 되거나 그보다 못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비할 데가 없는 성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한복음 14:26)

구주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매일 기도와 경전 공부,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매일 이러한 것을 긍정적으로 실천한다면 우리 안에 정직과 고결성이 쌓여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인

여러분의 고결성과, 여러분이 실제로 누구인지가 정직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주  
1. 조셉 비 워스린, “인생의 교훈”, 리야호나, 2007년 5월호, 46쪽.  
2.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19쪽.  
3.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19쪽.



# 명예롭게 돌려준다

우연일지라도 도둑은 되고 싶지 않았다.

## 발레리 베스트

오후 늦게 수업이 끝난 후, 집에 가기 전에 작은 골동품 가게에 들렀다. 빗줄기가 점차 거세졌지만, 꼭 끝내고 싶은 심부름이 있었다. 그 가게에 손님은 나뿐이었다. 여자 점원은 내가 골라 두었던 램프를 찾도록 도와주었다.

점원이 쇼핑백을 열고 있을 때, 진열대에 밝은 색깔의 팔찌가 전시된 것이 보였다. 점원이 램프를 쇼핑백에 집어넣는 동안 나는 팔찌 하나를 꺼내 보았다. 점원이 진열대를 건드려서 진열된 팔찌 절반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점원은 좀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계산을 마쳤다. 나는 한 손에는 우산을, 다른 한 손에는 램프가 담긴 쇼핑백을 들고서 상점을 나왔다.

걸어서 집에 도착한 나는 젖은 장화를 벗고서는 음악을 들었다. 램프를 꺼내려는데 쇼핑백 바닥에 뭔가 있는 것이 보였다. 붉은 색 팔찌였다. 분명 진열대에서 내 쇼핑백으로 떨어진 게 분명했다. '이거 옛날에 청녀 교재에서 들었던 한 이야기와 유사한 상황이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제 "발레리는 월계반 공과 시간에 들은 공과가 떠올랐다." 이렇게 이어지겠지?

나는 그 팔찌를 침대 위에 던져

놓고선 램프를 켰다. 흐린 오후에 램프에서 나오는 따뜻한 빛이 방안 가득 퍼졌다. 나는 창 밖을 내다보았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땅 위의 눈이 더러워져 질척거렸다.

나는 팔찌를 쳐다보았다. 붉은 채리색이었다. 나는 손목에 걸쳐 보았다. 달랑거리는 가격표에는 20달러라고 적혀 있었다. 물론 나는 되돌려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나는 팔찌를 빼서 내다버리려 했던 책 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뜨거운 코코아를 마시려고 다른 방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 책들을 언제부터 버리려고 했더라? 꽤 오래 전부터인 듯했다. 다시 돌려주는 일을 미룬다면 그 팔찌를 얼마나 가지고 있게 되는 걸까?

나는 돌려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과연 언제란 말인가? 너무 오래 기다려서 돌려주는 게 이상해질 때까지 갖고 있을 셈인가?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나는 창 밖을 다시 내다보았다. '이제야 막 발이 녹기 시작했는데.' 맛있는 코코아도 생각났다.

하지만 나는 팔찌를 집어 들고 장화를 신은 후 밖으로 다시 나갔다.

그 상점에 도착했을 때 점원은 다른



손님을 도와주고 있었다. 나는 서서 기다렸다. 내 차례가 되자 나는 외투 주머니에서 팔찌를 꺼내 어떻게 된 경위인지 설명했다. 점원은 좀 놀라면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내 정직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해 주지 않았다. 점원은 고마워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옆에서 이 일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집으로 걸어오면서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정직한 사람으로 여겨 왔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내가 소중히 여기고 또 남들에게 기대하는 자질이기도 하다. 하지만 진정한 정직함이란 진실한 사랑과 자애처럼 적극적인 속성이다.

내 의도가 얼마나 고귀하고 진솔했든지 간에 나는 도로 장화를 신고 내 의도대로 행했을 때에만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나는 주머니 속의 빈 손목을 느끼며 씩 웃었다. ■

글쓴이는 미국 뉴욕에 산다.

# 성약의 힘



**성**약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하나님과 맺는 약속”이라는 대답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맺는 성약은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성스러운 약속에는 권능, 힘, 안전,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맺은, 혹은 앞으로 맺을 성약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방식이 바뀔 것입니다. 성약은 여러분의 행동 양식과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다음은 성약이 몇몇 청소년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보여 줍니다.



“성약은 협착하고 좁은 길을 걷게 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합니다. 또한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마크스 에이, 17세, 미국 유타**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을 맺었다는 사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충실한 회원이 될 기회를 내게 주었습니다. 매번 원가 하려 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성약을 생각해요. 그리고 침례 받았을 때, 또 신권을 받았을 때 그분과 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성약은 제가 복음 안에서 굳건히 생활하게 해 주며 언젠가 그분께 돌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프라인 브이, 14세, 뉴질랜드**



“침례 받았을 때가 떠올라요. 첫 번째 성약을 맺었기 때문에 가장 행복했던 때였어요. 다음 번 성약은 신권을 받을 때

맺었어요. 똑같은 행복감을 느꼈죠. 저는 하나님과 성약을 맺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활짝 웃었어요. 애들이 교회를 조롱할 때 저는 제가 느낀 행복감과, 그 성약이 사람과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것임을 떠올립니다.”

**브래드포드 에이, 16세, 미국 애리조나**

“성약을 맺음으로써 우리와 우리 가족은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침례 받음으로써 우리는 변화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맺는 성약은 우리가 복음에 충실하게 되는 데 필요한 신앙을 쌓게 해 줍니다.”

**나오미 에이, 15세, 멕시코 과달라하라**



“지난 여름에 저는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침례를 위해 종종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가서 옳은 것을 행함으로써 제 성약을 지켰을 때 저는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기말고사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전에 갔을 때 모든 것이 그냥 술술 풀렸습니다. 성약을 지켰을 때 삶이 더 편하게 되고 더 행복해집니다.”

**멕케나 엠, 18세, 미국 캘리포니아**

“집사로서 처음 성찬을 전달했을 때 몹시 긴장되었어요. 그때 저는 침례 받았던 날을 떠올렸고 성신을 느꼈어요. 저도 모르게 잠잠해지고 성찬을 잘 전달할 수 있었어요.”

**세스 에이, 12세, 멕시코 멕시코시티**



  
**일요일 공과**  
 이번 달 주제:  
**의식과 성약**

**성약은 약속이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화에 참여하세요**



**7월** 내내 여러분은 신권 정원회와 청녀 및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 의식과 성약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맺었거나 맺기를 원하는 성약을 나열해 보십시오. 그 목록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해 줍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함으로써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십시오.



**거룩한 성약은  
기독교인들을  
강하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신권 의식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그것들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고난의 시기에 여러분의 성약이 최우선이 되고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 여러분을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약의 권능”,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22쪽.



“저는 성약을 지킴으로써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침례 성약 때문에 성신은 제가 결정할 때 도와주었어요. 신권을 받을 때 맺는 성약은 남을 돕고 봉사하는 데 신권을 쓰겠다는 다짐을 나타냅니다. 봉사할 때 간증이 커지도록 도와주죠.”

**에릭 엔, 15세, 캐나다 앨버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라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저를 좀 더 높은 수준에 머물도록 해 줍니다.”

**줄리 에이치, 15세, 미국 콜로라도**

원본 사진: 크리스티나 스티븐스, 크레이그 데이먼 © IR; detail from Christ Calling Peter and Andrew, by Henry Anderson © IR

가장 좋아했던  
가정의 밤

M

주의





**영적인 슈퍼영웅**

**어**해 우리 집에는 월요일 밤마다 멋진 슈퍼영웅들이 찾아왔다! 우리 가족과 흡사하게 생긴 이 슈퍼영웅들은 특별한 초능력이 있고, 간증을 강화하는 중요한 공과를 가르쳤다. 이를 통해 우리 가족은 서로 더 돈독한 사이가 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한 주는 미디어 맨이란 영웅이 우리에게 부적절한 영화, 텔레비전 쇼, 잡지로부터 우리 눈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를 가르쳤다. 다른 주에는 핏 미스라는 영웅이 와서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 어떻게 초인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범블비(영화 트랜스포머에 나온 변신 차량) 복장을 한 비 스틸은 우리에게 교회와 가정에서 조용히 하고 경건해지는 법을 가르쳤다. 월드 걸이란 영웅은 서로 어떻게, 또 언제 더 많이 칭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그 외에 감사의 영웅, 스스로 하기 영웅, 경전 영웅, 예의 바른 영웅, 선교사 영웅 등이 가정의 밤 공과에 참여했다.

나는 우리 가족이 슈퍼영웅으로 분장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 깊이, 그리고 주의 깊게 생각해 봤던 것에 감사하다. 우리 모두 가정의 밤을 고대했다. 그리고 매번 슈퍼영웅들이 올 때마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는 매번 우리 가족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심사숙고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서로에게서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해주셨음에 감사한다. 이 슈퍼영웅들에 대한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할 것이다. ■  
빅터 더블유, 미국

**오빠의 간증**

**어**머니는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매일 일하신다. 월요일 저녁에 어머니가 집에 계시지 않아도 오빠와 나는 우리끼리 가정의 밤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오빠는 8년간 저활동이었지만 최근에 종교 교육원에 나오기 시작했고 월요일 밤에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했다. 내가 4년간 세미나리를 다니고 개인발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영적인 생각을 몰몬경에서 전했다. 내가 느낀 영은 언젠가 우리 집에 합당한 신권 소유자가 있게 되는 그때에 내가 바랐던 바로 그 영이었다.

그 가정의 밤 공과 덕분에 이 훌륭한 가족은 기꺼이 복음을 더 배우고 싶어 하게 되었다. 나는 가정의 밤이, 내 삶에 자리잡은 복음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주 하는 가정의 밤을 통해 가족을 강화시킬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오빠와 함께 이 겸손한 가족과 함께 가정의 밤을 할 수 있어 기쁘다. ■  
이사도라 에이, 브라질

**어둠 속에서 교화됨**

**나**는 정전이 된 상황 속에서 했던 가정의 밤 공과를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전기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나는 가정의 밤이 완전히 엉망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빛이 없으면 리아호나 기사도 읽을 수도 없고 찬송가를 보고 부를 수도 없는데 어떻게 가정의 밤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다행히 여동생이 좋은 생각을 떠올렸다. 그것은 우리가 외출 수 있는 찬송가를 부른 뒤 전 주 일요일에 배웠던 것을 나누면 어떻겠냐는 멋진 아이디어였다. 우리는 모두 원리를 나누고 서로에게서 배웠다. 내 생각으로는 함께 배우는 것이 가정의 밤을 하는 목적인 듯하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가 빛 없이도 가정의 밤을 하라는 계명을 지킨 것에 매우 기뻐하실 것임을 확신한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가 홀로 그분의 면전으로 되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심을 안다. 그분은 우리가 가족과 함께 돌아오길 바라시고, 매주 가정의 밤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기를 바라시기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

헤리카 에스, 브라질

이러한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 가정의 밤이 어떻게 우리를 고양하면서도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사진: 신화, 토이 드 엔드 레지



# 성전

## 옆에서 보낸 여름

우리 가족은 매년 여름 휴가를 성전에 가는 데 썼고, 큰 축복을 받았다.

데이비드 이삭슨

**나**는 노르웨이에서 컸다.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성전은 차로 8~10시간 가야 하는 스웨덴 스톡홀름 성전이였다. 말할 것도 없이, 성전에 가는 데에는 세심한 계획과 숙고가 필요했다. 우리 스테이크는 매년 청소년 성전 방문을 두 번 계획했고 몇몇 와드는 버스를 대절해 주말에 성전에 갔다. 다른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가는 것은 즐거웠으나 가족들과 나는 언젠가 가족끼리 성전에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어느 해에 우리는 여름 휴가 동안 스톡홀름에 가기로 했다. 우리는 정말 멋진 경험을 했으며, 이것은 여름마다 하는 행사가 되었다. 우리는 성전 주변의 야영장에서 머물렀다. 아침이면, 노르웨이에서 스톡홀름 성전에 온 다른 가족들과 함께 대리 침례를 받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 그 후에는 야영장에서 축구와 수영을 하며 놀았다.

이렇게 보낸 여름은 지금도 내게 성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매달 성전에 갈 수 있을 만한 거리에 사는 게 아니기에 성전에 가는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일이었다. 물론 차로 오랫동안 가야 해서 지루하기도 했지만, 주님은 우리의 희생을 축복하셨다. 성전에서 영적인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는 성전과 그 의식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 가족은 더욱더 단합되게 되었다.

내가 사춘기 시절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때 겪었던 특별한 경험을 기억한다. 그때 내 눈에 부모님은 결점이 너무나 많은 분들처럼 보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간섭할 권리가 부모님에게는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성전에 가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에 의구심을 느꼈었다. 하지만 침례와 확인을 받으러 함께 성전에 갈 때면 감미로운 영이 함께함을 느꼈다. 돌아가신 분들 대신 확인을 받으러 할 때 아버지는 내 머리에 손을 얹으셨고, 아버지가 참된 신권 권세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영이 내게 확인해 주는 것을 느꼈다. 이 일을 통해 나는 비록 아버지가 완벽하지는 않으시더라도 여전히 좋은

아버지이시며 내가 그분의 아들인 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반항적인 태도를 회개해야 한다고 느꼈으며 아버지의 권고에 담긴 지혜와 사랑을 느끼려고 애썼다.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여름마다 성전에 갔던 기억은 여전히 내 기억 속에 생생하다. 성전은 세상에서도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다. 마치 물몬의 물이 엘마의 백성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다. “구속주에 대한 지식에 이른 자들의 눈에 얼마나 아름다우냐”(모사이아서 18:30)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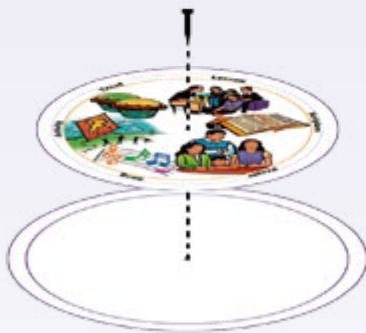
### 성전 축복

**성**전에 갔을 때 어떤 축복을 경험했는가? 가족에게 자신의 느낌을 나누거나 일지에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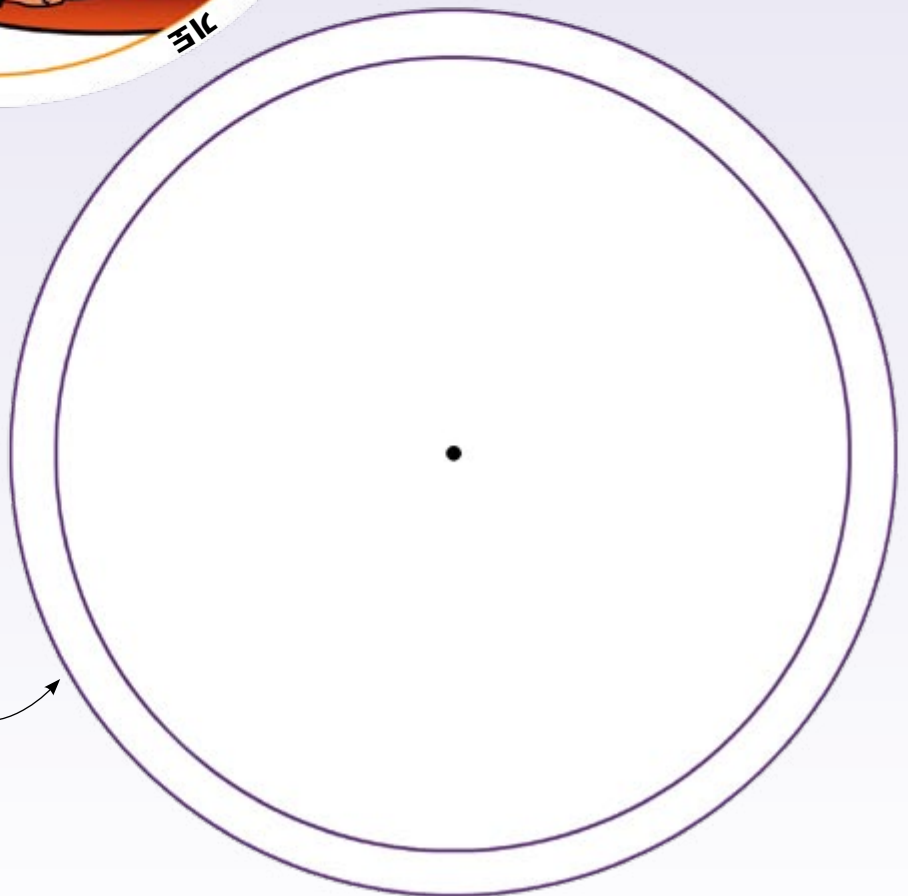
# 가정의 밤 바퀴



**가**정의 밤을 계획할 때 도움이 되는, 임무 지명 바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 바퀴를 두꺼운 종이에 올려놓고 가운데를 금속으로 고정하세요. 바퀴 바깥쪽 주위에 가족 이름을 쓰세요. 매주 바퀴를 돌려서 임무를 바꾸세요.



바깥쪽 가장자리에 가족의 이름을 쓰세요.



# 사람 살려!

하이디 에스 스윈튼

**매**년 여름이면 몬슨 가족은 두 달간 프로보 리버라는 강가에 있는 가족 오두막집에서 보냈습니다. 토미 몬슨은 강의 빠른 물살 속에서 수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에 열세 살 소년이었던 토미는 강물을 따라 바람이 가득 든 커다란 튜브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날 강 둔치에는 소풍을 나와 음식을 먹으며 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토미의 튜브가 물살이 가장 거센 곳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한 어린 여자아이가 위험한 소용돌이 속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강가에는 헤엄쳐서 아이를 구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토미가 그곳으로 떠내려왔고, 토미의 눈에

소녀의 머리가 물 속으로 잠기는 것이 보였습니다. 토미는 손을 뻗어 소녀의 머리카락을 붙잡은 뒤에 튜브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 후 양손으로 강물을 저으며 강둑으로 갔습니다. 소녀의 가족은 아이를 와락 껴안고서 입을 맞추며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그런 후 토미도 껴안고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되어 당황한 토미는 재빨리 튜브에 올랐습니다.

토미는 계속해서 강 아래로 내려가면서 가슴이 따뜻한 느낌으로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토미는 자신이 한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하는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정확하게 토미가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날 토미는 그 감미로운 기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아시며, 우리가 그분을 도와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



성화 제니퍼 몰린, 돌리 홀리 허버트

## 여러분이 맡은 일을 하세요

열한 살 때 토미는 학교 친구들이 횡단 보도를 건너도록 돕는 특별한 의무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세요. 토미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한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나요?



## 안전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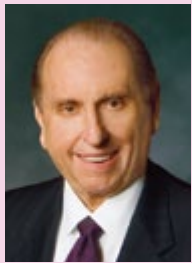
토미가 프로보 리버에서 수영을 배울 때, 가족들은 주위에 머물면서 토미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토미가 되어 안전한 원 놀이를 해 보세요.

### 필요한 것:

놀이에 참여할 사람 네 명 이상  
탁 트인 공간

### 놀이 방법:

손을 맞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섭니다. 술래가 원 중앙에 섭니다. 중앙에 선 술래는 눈가리개를 하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원으로 둘러선 사람들은 손을 꼭 잡아야 하지만 술래와 몸이 닿아서는 안 됩니다. 서로 번갈아 가며 술래가 됩니다.



### 몬슨 회장님 말씀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기회는 참으로 무한합니다. …… 기쁘게 해 줘야 할 마음들이 있습니다. 표현해야 할 친절할 말들이 있습니다. 베풀어야 할 선물들이 있고 행해야 할 행위들이 있습니다. 구해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First Presidency Christmas Devotional”, *Ensign*, Feb. 2001, 73.



#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 계획의 일부이다

여기에 나오는 공과와 활동을 활용하면 이번 달 초등회 주제에 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물** 문경에는 아멜리카아이라는 사악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니파이인의 왕이 되어 통치하고 싶어했습니다.

모로나이 대장은 니파이인 군대를 이끄는 강하고 의로운 지도자였습니다. 모로나이 장군은 백성들에게 가족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주고 싶었습니다. 모로나이 장군은 겂옷을 찢어 깃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깃발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종교와 자유와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를 기억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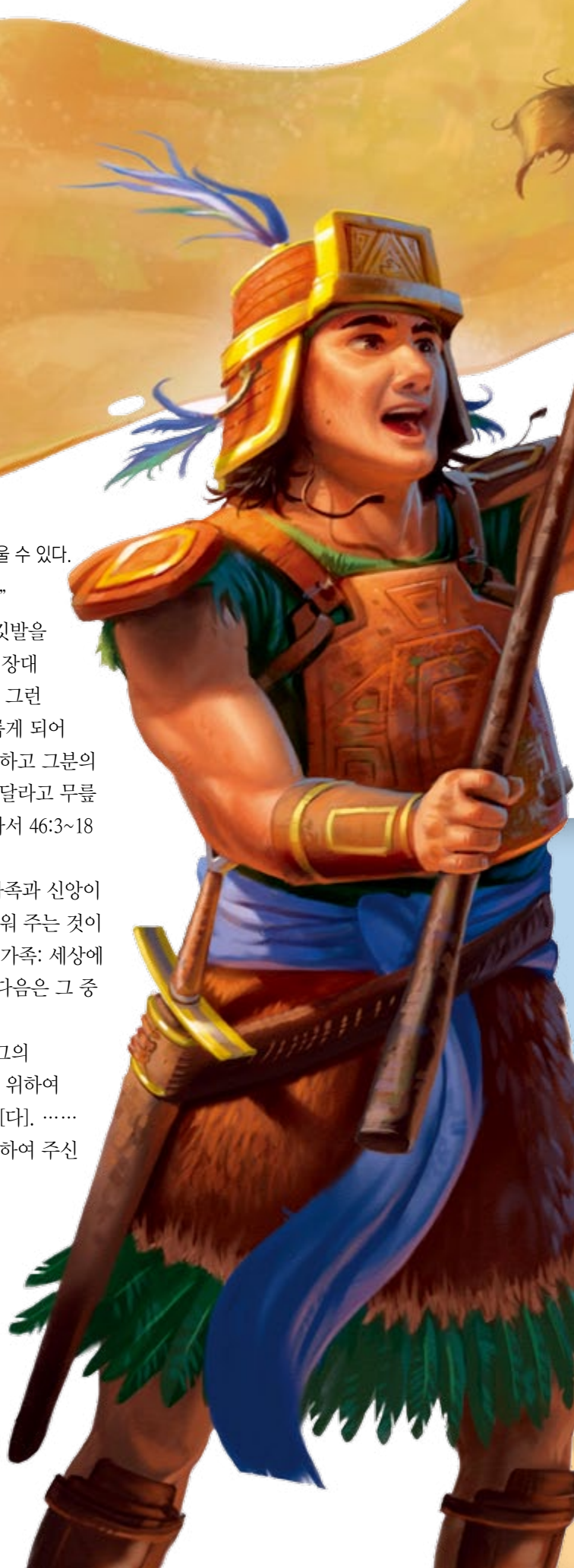
모로나이 장군은 이 깃발을 “자유와 기치”라 부르며 장대 끝에 비껴매었습니다. 그런 후 그는 백성들이 자유롭게 되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앨마서 46:3~18 참조)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족과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입니다. 다음은 그 중 일부입니다.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다]. ……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

## 가족과 대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읽어 보세요. 더 돈독한 가족 관계를 이루기 위해 함께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 후 그중 한 가지를 골라 실천 계획을 세워 보세요.





원본 삽화: 브랜든 도먼;  
오른쪽 삽화: 레이첼 호프먼 배인스

### 노래와 성구

- “가족은 영원해”(어린이 노래책, 98쪽)
- 알마서 46:3~18

### 가족 깃발 활동

종이나 천을 이용해서 가족을 대표하는 깃발을 만들어 보세요. 마커펜이나 크레파스로 가족에게 중요한 것을 그려 보세요.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 혹은 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축복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인용문이나 격언을 적어 보세요.

# 미주리에서 겪은 시련

제니퍼 메디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곳을 탐방해 보세요!

**조** 셉 스미스는 오하이오  
 커틀랜드에서 미주리  
 인디펜던스까지 멀고도 힘든  
 여행을 했습니다. 조셉은 짐마차와 운하용  
 배, 역마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02킬로미터는 직접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미주리로 가서  
 시온의 도시를 건설하라고 명하셨기에 조셉  
 스미스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831년에는 교회 회원들도 미주리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밭을 일구고 집을 지었으며 곡식을  
수확했습니다.

더욱더 많은 교회 회원이 미주리  
인디펜던스로 이주해 오자 원래 그곳에  
살던 주민 중 일부는 회원들을 의심쩍어  
하며 화를 냈습니다. 폭도들은 성도들의  
집을 습격하여 그곳을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



인디펜던스 방문자 센터에 있는 이 그림에는 성도들이 통나무 집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윌리엄 더블유 펠프스는 인디펜던스에 인쇄소를 차리고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또한 성약의 책 일부를 인쇄했는데, 그 안에는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의 일부가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계시들을 교리와 성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리버티 감옥

1838년 겨울, 조셉 스미스와 교회 지도자들 다섯 명이 누명을 쓰고 체포되어 리버티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은 어둡고 더러웠으며 몹시 추웠습니다. 몸을 덮을 따뜻한 담요도 없었고 음식도 형편없었습니다. 리버티 감옥은 두꺼운 돌벽으로 만든 곳이었습니다. 위층 방에는 간수 가족들이 살았고, 아래층 방은 수감자들을 가둔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치켜 올리는 뚜껑문이 아래층을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 말라. 이는 하나님이 영원무궁토록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1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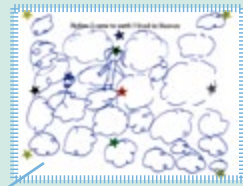
교회는 원래 그 감옥에 쓰였던 돌과 다시 제작한 돌로 리버티 감옥의 일부를 재건한 후 그 주변에 방문자 센터를 지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방문객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위안이 되는 계시를 받았던 장소를 보기 위해 그곳에 옵니다.



# 우리들 이야기



멕시코에 사는 세 살배기 소년 리카르도 오는 봉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리카르도는 토요일이면 여동생 올레아와 함께 부모님이 건물 청소하시는 것을 돕습니다. 그 건물에서 리카르도네 지부 회원들이 성찬식을 하기 때문이지요. 리카르도는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 웃으면서 봉사합니다.



서인도제도 자메이카 맨더빌 지방부, 정선 지부 초등회 어린이들은 구주에 대해 배우고 그분의 모범을 따르려고 침례 받고 성전에 갈 준비를 합니다.



로이 피, 캄보디아(7세)



응웬 엘(7세), 캄보디아



브라질에 사는 마리아 클레라(4세)는 성찬식 말씀을 했는데 신앙개조 13조를 한 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외워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마리아의 초등회 회장님은

마리아가 어른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교회에 가는 거랑 초등회에 가는 것이 좋아요. 저는 책 읽기를 배우고 있어요. 물론경 이야기를 좋아해요. 여동생과 저는 엄마를 돕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는 리아호나 어린이안 읽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는 문슨 회장님과 자매님을 위해 기도해요.

엘리슨 에이(6세), 후아나 에이(3세), 아르헨티나



침례 받은 르네토와 그의 가족

초등회에서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에 간 적이 있어요. 저는 성전 정원처럼 아름다운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성전에서 맺는 성약을 통해 가족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성전 회장님은 아름다운

그림들이 걸려 있는 대기실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죠. 아주 따스하고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느낌은 제가 배우고 있는 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성신께서 증거해 주시는 것이었다고 엄마께서 알려 주셨어요. 저는 성전이 주님의 집이라는 간증이 생겼어요.

르네토 비(8세), 브라질



성전 바깥은 정말 아름다워요. 꽃도 많지요. 하지만 가족에게 인봉되었을 때, 저는 성전 안이 더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니콜라스 엠(5세), 콜롬비아

특별한 증인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가족 역사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입니다.

**선** 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 가장 큰 책임은 죽은 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sup>1</sup>

가족 역사는 구원과 승영의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 우리는 조상을 찾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 의식을 제공하겠다고 성약을 맺었으며, 그럴 책임이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엘리야의 영에 대해 배우고 직접 경험해 보도록 권고합니다.<sup>2</sup>

조상에 대해 연구하고 찾아서 죽은 친족들을 위해 주님의 집에서 대리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이 권고에 신앙으로 응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조상에게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선조를 더 사랑하고 더 깊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뿐 아니라 평생토록 보호될 것입니다.

구주에 대한 간증과 개종이 더욱 깊어지고 확고해질 것입니다. ■

“자녀들의 마음은 돌이켜질 것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24~27쪽에서 발췌.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475쪽.
2. 고리와 성약 2:1~2 참조.





# 이야기로 짜인 깎개

## 그 많은 이야기가 깔개 하나에 다 들어갈 줄을 누가 알았을까?

케이 팀슨  
실화에 근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찾아  
그들의 이름 알아서 성전에  
들어가”(“엘리아로부터 온 진리”, 어린이  
노래책, 10~11쪽)

**길** 모퉁이에 서 있는 커다란  
참나무를 향해 케이티는  
깡충깡충 인도를 뛰어갔습니다.  
이 고목 덕분에 할머니 댁은 찾기가  
쉽습니다.

어느 때와 같이 할머니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서 알록달록하고 기다란  
천 조각을 꼬아서 바느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윤이 나는 할머니 댁  
마룻바닥은 할머니께서 손수 만드신  
아름다운 깔개로 꾸며져 있습니다.

케이티가 들어오자 할머니는 “어서  
오너라, 아가.” 하며 반겨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케이티에게 “옛날”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흑백 사진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케이티는 할머니의 친척들이 어릴 때  
입었던 옷과 머리 모양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며 “그때는  
참 많이 달랐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나 텔레비전, 휴대전화도 없었단다.”

케이티는 어디를 가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 상상이 잘 안 되었습니다.  
“할머니, 뭐하고 노셨어요?” 케이티가  
여쭙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지. 저녁이면 피아노 주위에  
모여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불렀단다.

때로 목이 쉬어라 부르기도 했지! 정말  
재미있었어.”

할머니는 마치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서 다시 볼 수 있길라도 하는 듯  
뜰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케이티는 할머니 무릎 옆으로 젖혀  
있는 깔개 옆에 앉았습니다. 케이티는  
한 땀 한 땀 정교하게 짜인 깔개를  
손가락으로 만져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네가 깔개를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떻겠니?”

케이티는 팔짝팔짝 뛰면서 손뼉을  
쳤습니다.

“정말 좋아요. 할머니!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거죠?”

할머니는 껄껄 웃으셨습니다. “음,  
네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단다. 집에  
가서 천 조각을 만들 현 옷을 모아  
오렴.”

몸을 구부려 케이티를 바라보시는  
할머니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비밀 이야기를 하는  
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깔개가 특별해지는  
거란다. 현 옷으로 만들기 때문에  
깔개는 네 인생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단다. 꼬아 놓은 천 조각 하나하나가  
네 인생이란 책의 각 장이 되는 거지. 현  
옷 조각을 보면, 네가 그 옷을 입었던  
곳과 그 옷을 입고 했던 일들이 기억날  
거야.”

케이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케이티는 할머니가 만들고 계신 깔개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쓰인 옷을 모두 기억하세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물론이지!  
이 빨간색 조각은 네가 태어났을  
때 입었던 옷에서 잘라 낸 거란다.  
너를 좀 더 가까이 보려고 신생아실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대던 게  
생각나는구나. 네가 아직 짜글짜글하고  
말그레했을 때지.”

깔개에 서린 케이티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케이티와 할머니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하자마자  
케이티는 엄마와 함께 깔개를 만들 현  
옷을 챙겼습니다.

다음 날, 케이티는 현 옷을 들고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케이티에게 옷을 길게 잘라 꼬고 모아서  
바느질하는 방법을 보여 주셨습니다.

매일 학교가 끝나면 케이티는 할머니  
댁에서 깔개를 만들었습니다.

깔개는 조금씩 완성되어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케이티는 할머니가 들려  
주시는 많은 이야기를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케이티가 할머니께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장 좋아했던 청바지에서  
오려 낸 파란 조각을 깔개로 엮은 후,  
케이티는 알록달록하게 뿜은 깔개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지?” 할머니가  
하시던 일을 멈추고 물으셨습니다.

케이티는 웃으며 “아직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케이티는 할머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

# 이야기 교환하기

**케** 이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데 할머니의 알록달록한 깔개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66~67쪽 참조) 가족들이 서로 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놀이를 소개합니다!

## 준비물

- 단색으로 된 작은 물건 몇 개. 색상이 다른 물체를 6개 이상 찾아보세요. 단추나 색깔을 띤 조약돌, 혹은 사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물건을 넣을 봉투.

## 놀이 방법

1. 여기에 있는 아래 표에 적힌 지령마다 물건의 색깔을 적어 보세요.
2. 가족들에게 동그렇게 둘러 앉으라고 합니다. 작은 물건들을 봉투에 집어넣습니다.

3. 봉투를 다음 사람에게 돌립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물건을 꺼내 자신이 선택한 물건의 색깔에 맞는 지시에 따라 대답하게 합니다. 남은 물건이 없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 이야기 교환 표

색깔마다 가족들이 들려 준 그 다양한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 색상

### 지시 사항

	절친한 친구에 관해 이야기해 주세요.
	용기가 필요했던 일을 들려주세요.
	한때 했던 어리석거나 부끄러웠던 일에 대해 말해 보세요.
	가장 좋아하는 경전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지요?
	아주 재미있었던 학교 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동물로 변신할 수 있다면 어떤 동물이 되고 싶나요? 그 이유는 뭔가요?

# 안녕하세요! 저는 엘살바도르에 사는 에리카예요



우리 지부의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이 FamilySearch 프로그램으로 이름 색인 작업하는 일을 배워 보겠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돕고 싶었어요. 엄마도 제가 도움을 드리길 바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색인 작업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름 아홉 개를 색인 작업하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렸어요. 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연습한 끝에, 이제는 하루에 이름 300개를 색인 작업할 수 있어요.

숙제를 끝낸 후에는 색인 작업을 합니다. 제게 색인 작업은 놀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만큼 재미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에는 더 훌륭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제 이름은 에리카 지이고, 사는 곳은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예요. 저는 성전 의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이름을 준비하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영의 세계에 계신 2,000명 이상의 산살바도르인 조상의 성전 의식을 위한 이름을 준비하도록 돕는 이 기회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

마고 메이  
누가복음 5:1~11에서

시몬과 안드레 형제는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밤,  
시몬과 안드레는 밤새도록  
그물을 쳤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두 형제에게 한 번 더 그물을 바다에  
던져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자  
그물에는 물고기가 가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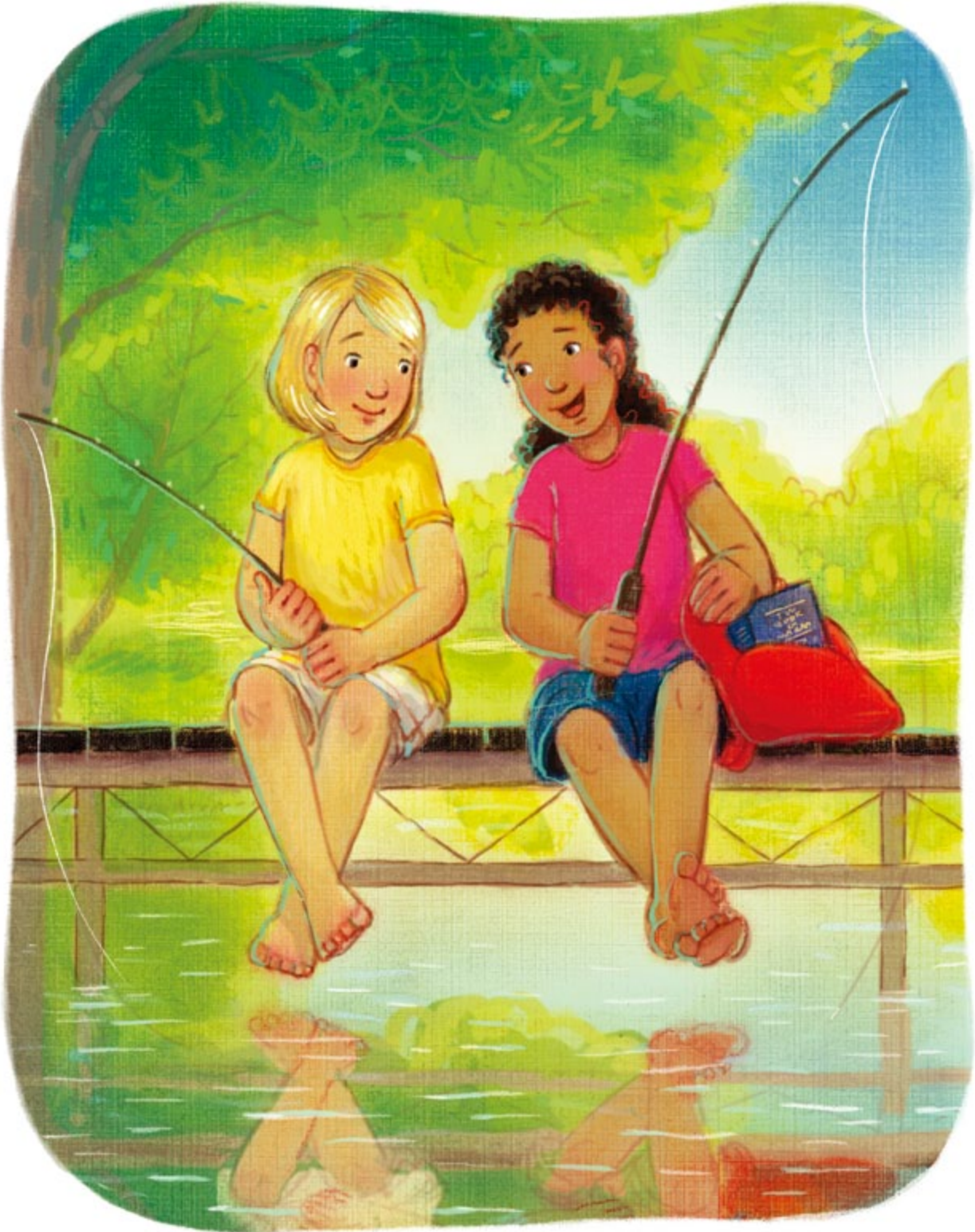


시몬과 안드레는 친구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고기를 배에 실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했습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배 두 척을 가득 채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신을 따르면 물고기보다 더 좋은 것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배를 비롯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처럼 우리도 선한 모범을 보이고 예수님에 대해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누가복음 5:10~11)

# 교회 소식

더 많은 교회 소식과 기사를 보려면 [news.lds.org](http://news.lds.org)에 접속한다.

## 새로 부름받은 선교부 회장

교회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선교부 회장들을 발표했으며 그들은 이번 달부터 부름 받은 임지에서 봉사하게 될 것이다.

선교부	신임 회장
한국 대전	신용인
한국 서울 남	마살 알 모리스
가나 아크라 서	노만 시 힐
과테말라 레탈룰레우	조니 에프 루이스
과테말라 코반	존 에프 커티스
나이지리아 라고스	리차드 케이 아하드지에
나이지리아 베닌시티	아킹바데 에이 오호
나이지리아 에누구	프리바디 에이 멘사
남아프리카 더반	존 에이 재크리슨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서	마이클 비 알랜더
뉴멕시코 앨버커키	스티븐 제이 밀러
뉴욕 로체스터	아서 알 프랜시스
뉴질랜드 해밀턴	찰스 에이 러드
뉴햄프셔 맨체스터	필립 엠 스토키
니카라과 마나과 남	브라이언 지 러셀
니카라과 마나과 북	몬슈 콜라도
대만 타이칭	커트 엘 블리컨스태프
라이베리아 몬로비아	로저 엘 커컴
러시아 모스크바	게리 이 보더스
러시아 사마라	마이클 엘 슈바프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발 제이 크리스텐슨
마셜제도 마주로	토머스 엘 위어
멕시코 레이노사	아벨라르도 모랄레스
멕시코 메리다	세르지오 에이 가르시아
멕시코 멕시코시티 동	세르지오 엠 아나야
멕시코 멕시코시티 북서	브래드 에이치 홀
멕시코 멕시코시티 서	조지 에프 화이트헤드
멕시코 멕시코시티 찰코	제럴드 디 크리모어
멕시코 몬테레이 동	래리 시 버드

선교부	신임 회장
멕시코 비야에르모사	이스라엘 지 모랄레스
멕시코 살티요	엘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멕시코 시우다드 오브레곤	마우리시오 무니베
멕시코 시우다드 후아레스	로돌포 데르베즈
멕시코 아과스칼리엔테스	후안 비야레알
멕시코 치와와	올리세스 차베스
멕시코 칸쿤	데일 비 커컴주니어
멕시코 케레타로	하비에르 엘 메호라다
멕시코 콜리아칸	헤수스 벨레즈
멕시코 파추카	앤드류 이 에그버트
몽골 울란바토르	조셉 피 벤슨
미시간 디트로이트	놀란 디 거버
미주리 세인트루이스	토머스 더블유 모건
버지니아 리치먼드	이 브래들리 월슨
버지니아 체서피크	알렌 제이 베이커
베네수엘라 발렌시아	길러모 엘 가디아
보츠와나 가보로네	메릴 에이 월슨
볼리비아 라파스	홀리안 에이 팔라치오
볼리비아 산타크루스 북	리차드 시 삼브라노
볼리비아 산타크루스	제이슨 에이 월러드
브라질 고이아니아	데이비드 쿠체키
브라질 나타우	사울로 소아레스
브라질 론드리나	시 알베르토 드 제나로
브라질 산타마리아	아달튼 피 파렐라
브라질 산토스	셀소비 카브랄
브라질 상파울루 서	호세 루이즈 델 구에르소
브라질 주앙페소아	이자리아스피 노구에이라
브라질 주이즈 데포라	루시아노 카스카르디
브라질 쿠리치바 남	레오넬 알 페르난데스
브라질 쿠리치바	앤더슨 엠 몬테이로
브라질 포르탈레자 동	카를로스 푸스코
브라질 피라시카바	케네티 에프 카누토
브라질 히베이랑 프레투	마우로 티 브럼
시에라리온 프리타운	데이비드 비 오스틀러
아르메니아 예레반	제이 스티븐 칼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남	레리 엘 서굿

선교부	신임 회장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북	데이비드 에스 에어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루벤 브이 알리아우드
아르헨티나 코모도리바다비아	마크 에프 로저스
아르헨티나 포사다스	리알 라피에르
아이다호 뎀파	스튜어트 비 캐논
아이다호 보이시	존 윈더
아이다호 트윈 폴스	글렌 알 커티스
아이오와 디모인	존 알 젠슨
앙골라 루안다	데니엘 메릴
애리조나 길버트	케이 브렛 내트레스
애리조나 메사	커크 엘 젠킨스
애리조나 스코츠데일	칼 알 스위니
애리조나 템피	제임스 엘 톤
앨라배마 버밍햄	리처드 이 행크스
에콰도르 과야킬 남	맥스 시모시 토레스
에콰도르 과야킬 서	호르케 데니스
에콰도르 키토 북	브라이언 에이 리차드슨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동	데이비드 엘 글레이저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서/벨리즈	카이디 힌체
영국 리즈	그레이엄 필킹튼
오리건 세일럼	마이클 알 새뮤얼리언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남	레리 제이 루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북	필립 에프 하워스
오클라호마 오클라호마시티	스튜어트 알 워컨호스트
오하이오 신시내티	존 피 포터
온두라스 산페드로술라 동	노만 에스 클레인
온두라스 산페드로술라 서	제임스 엠 데스터
우간다 캄팔라	로버트 에프 채트필드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서	토머스 에이 스미스
우크라이나 리비브	대니얼 이 래틴
워싱턴 디시 북	피터 에스 쿡
워싱턴 밴쿠버	덜런 시 테일러
워싱턴 시애틀	최윤환
워싱턴 에버렛	마크 본 햄
워싱턴 케너윅	보이드 에스 웨어
워싱턴 페더럴 웨이	로버트 아이 이튼

선교부	신임 회장
위스콘신 밀워키	레이먼드 에이 커틀러
유타 세인트조지	존 알 센터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남	로버트 이 챔버스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동	존 시 에버하트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스티븐 더블유 한센
이탈리아 로마	마이클 와둡스
이탈리아 밀라노	브루스 엘 덩
인도 방갈로르	데이비드 엠 베렛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크리스토퍼 엘 도날드
인디애나 인디애나폴리스	스티븐 시 클리브랜드
일리노이 시카고 서	제리디 펜
일리노이 시카고	폴 에스 우드버리
일본 나고야	가즈히코 야마시타
일본 도쿄 남	다카시 와다
자메이카 킹스턴	케빈 지 브라운
잠비아 루사카 선교부	레이프 제이 에릭슨
조지아 메이컨	브렌트 티 코틀
체코/슬로바키아	제임스 더블유 맥콩기3세
칠레 랑카과	토머스 알 윈
칠레 산티아고 남	데이비드 엘 쿡
칠레 산티아고 서	호세 에이 바레이로스
칠레 안토파가스타	크레이그 엘 돌튼
칠레 콘셉시온	켄트 제이 애링튼
캐나다 몬트리올	빅터 피 패트릭
캐나다 에드먼턴	래리 지 매니온
캔자스 위치토	마이클 엘 벨
캘리포니아 랜초 쿠카몽가	브루스 이 흡스
캘리포니아 레드랜즈	다니엘 제이 밴콧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데이비드 앤 와이드먼
캘리포니아 롱비치	라이언 엠 튜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	제임스 엠 월슨
캘리포니아 어바인	본디 오길
캘리포니아 칼즈배드	할 시 캔드릭
케냐 나이로비	게리 시 킁킨
콜로라도 덴버 남	제이 블레이크 머독
콜로라도 포트 콜린스	캘리 더블유 브라운

선교부	신임 회장
콜롬비아 바랑기야	켄트 알 설
콩고 민주 공화국	더블유 브라이스 쿡
텍사스 매캘런	페르난도 말루엔다
텍사스 샌안토니오	제임스 이 슬로터
텍사스 포트워스	로드니 에이 아메스
통가 누쿠알로파	레이토니 엠 투포우
파라과이 아순시온 북	간 에이치 맥멀린
파푸아뉴기니 라에	마크 피 페테루
패너마 패너마시티	커티스 카맥
페루 리마 북	존 알 에릭슨
페루 리마 서	블레이크 디 아치볼드
페루 아레키파	리처드 조브리스트
페루 우양카요	데이비드 와이 핸더슨
페루 이키토스	알레한드로 고메즈
페루 쿠스코	로버트 시 하버슨
페루 트루히요	디 커트 말러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티 게리 앤더슨
폴란드 바르샤바	스티븐 시 에드그렌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피 녹스 스마트 3세
플로리다 올랜드	마이클 제이 베리
플로리다 잭슨빌	폴 더블유 크레이그
플로리다 텔러해시	블래들리 제이 스미스
플로리다 탬파	마크디 쿠식
필리핀 나가	엘 베리 리더
필리핀 레가스피	조벤티오 에이 구안존
필리핀 바기오	앤서니 존 발레도스
필리핀 부투안	패스터 비 토레스
필리핀 세부 동	리처드 엘 태너
필리핀 우르다네타	윌리엄 제이 마나한
필리핀 일로일로	제이미 알 아키노
필리핀 카가얀데오로	앨버트 시 빌세코
필리핀 카비테	더글라스 시 테
필리핀 카우아얀	조지알 랄프
필리핀 케손시티	카를로스 레빌로
하와이 호놀룰루	스티븐 알 워너
호주 멜버른	코리 에이치 맥스웰
호주 브리즈번	론 이 핸더슨

## 쿡 장로의 말씀을 듣게 된 아이보리 코스트의 회원들과 구도자들

알스코트 로이드

처치 뉴스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엘 쿡 장로가 2013년 2월에 코트디부아르(아이보리코스트) 아비장을 찾았다. 방문 기간 동안 그는 신권 지도자 대회를 감리했으며 회원들과 구도자들과 함께하는 특별 모임을 개최했고 주요 정부 인사들을 예방했다.

이번 방문에서 쿡 장로는 칠십인 회장단의 엘휘트니 클레이튼 장로, 서아프리카 지역 회장인 칠십인 정원회의 존비 디슨 장로, 서아프리카 지역 회장단 제1보좌인 칠십인 정원회 조셉더블유 시타티 장로와 동행했다.

신권 지도자 대회와 회원 및 구도자 모임에 참석한 총인원은 9,693명이었고 그중 구도자는 619명이었다. 많은 회원들은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큰 희생을 감수했다.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선교부 메구이 지부의 버지니 오우라이 통고는 그녀의 가족이 사도를 만나보기 위해 돈을 저축했다고 말했다. 통고 자매는 “12시간을 여행했지만 저는 행복해요.”라고 말했다.

대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이 아주 풍성한 영을 즐겼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코코디 스테이크의 도쿠이 워드 감독인 레온 코우아디오는 “저는 우리 가운데 구주의 특별한 종이 함께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코트디부아르의 교회 회원 수는 1984년에 한 가족에서 시작하여 현재 다섯 개 스테이크와 한 개 지방부로 성장했다.

최근 몇 년간 아이보리 성도들은 가족 역사 사업과 성전 사업에 아주 충실하게 임했다. 2012년 동안 코트디부아르의 다섯 개 스테이크 중 세 개 스테이크가 가족 이름을 성전 의식을 위해 제출하는 성인들의 비율에서 전체 교회의 상위 25위 안에 들었다. 교회의 전체 스테이크 중에서 코코디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가 2월에 코티드부아르 아비장에 모인 수천 명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스테인크의 성인들이 한 번 또는 그 이상 성전 의식을 위해 이름을 제출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청소년들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아이보리의 젊은이들이 색인 작업에 참여하는 비율은 교회 평균치의 두 배 이상이며, 실제로 그들 중 아무도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거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기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스테이크 가족 역사 센터로 가야만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회원들은 가족 역사 사업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데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배워 왔다. 그들은 가나 아크라

성전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하기 전에 가족의 이름을 준비하려고 열심히 일하며 보통으로 몇몇 이름이 아니라 많은 이름을 성전에 가져간다.

쿡 장로와 클레이튼 장로는 회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우고, 가족을 강화하며,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활발히 나누고, 가족 역사 사업 및 성전 사업에 기울이는 그들의 믿기지 않는 노력과 같은 네 가지 주요 분야에서 계속 정진할 것을 권고했다. ■

## 최근 작고한 프랜시스 제이 몬슨 자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자신의 연애 이야기를 하며 “프랜시스를 처음 만난 날, 그녀가 바로 제가 찾던 사람이란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말했다.<sup>1</sup> 이 같은 사실은 프랜시스 비벌리 존슨 몬슨이 평생 동안 남편과 함께 봉사하며 그를 지지해 왔던 것을 통해 여러 번 확인되었다.

프랜시스는 2013년 5월 17일(향년 85세)에 노환으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한 번도 주목받은 적은 없었지만 몬슨 자매는 몬슨 회장을 따라 노인들과 아픈 이들을 방문했다. 몬슨 자매는 남편이 젊은 나이에 감독으로 부름 받았을 때 그에게 힘의 원천이 되었으며, 그가 1959년부터 1962년까지 캐나다 선교부를 감리했을 때 그의 곁에서 함께 봉사했다. 프랜시스 자매의 봉사는 사랑하는 남편이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고 십이사도 정원회와 제일회장단, 교회 회장으로 봉사하면서까지 계속되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셨고, 아버지가 받은 재능과 은사를 알아보시고는 아버지를 내조하고 아버지께서 그분의 재능을 맘껏 펼치도록 기꺼이 즐겁게 도와주셨어요.”라고 딸 앤 몬슨 딘은 말했다.<sup>2</sup>

프랜시스는 1927년 10월 27일, 프란츠 이 존슨과 힐터 부스 존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1948년 10월 7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과 결혼했다. 상호부조회와 초등학교에서 봉사했던 프랜시스는 음악에 재능을 보이고 유머 감각도 뛰어났으며, 무엇보다도 아내와 어머니, 할머니, 증조모라는 신분을 좋아했다.

딘 자매는 모친을 이렇게 묘사했다. “항상 남의 말을 경청하고 그와 똑같은 처지라면 필요했었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시던 분이셨죠. …… 어머니의 한결 같은 모범은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당신이 믿으셨던 것이나 하려고 하셨던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에 대해 한 번도 의구심을 품은 적이



2010년 4월 연차 대회 어느 모임 후의 몬슨 회장 내외.

없었어요.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자 후기 성도로서 해야 할 일들의 표본이셨죠.”<sup>3</sup>

“저는 아내가 제 교회의 책임에 대해 한 번도 불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몬슨 회장은 말했다. 그는 아내를 “온화하고 아주 깊이 있는 신앙을 지닌 여성”이라고 묘사했다.<sup>4</sup> ■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풍족하게 축복받음”,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111쪽.
2. 앤 엠 딘, “프랜시스 제이 몬슨, 토마스 에스 몬슨의 부인, 사망”(2013년 5월 17일), mormonnewsroom.org.
3. Ann M. Dibb, “Frances Monson: Through the Eyes of Daughter, Ann Monson Dibb” (Mormon Times video, May 12, 2013), ksl.com.
4. 토마스 에스 몬슨, 제프리 알 홀랜드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리아호나, 2008년 6월호, 8쪽 부록.



사진 제공: 케리비안 지역 및 처치 뉴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중앙)가 아이티에서 교회 3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명판 제막식을 감리하고 있다.

**아이티에서 교회 30주년을 축하하다**

아이티는 30년 전—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었던—토마스에스 몬슨 회장을 통해 회복된 복음이 전파되도록 헌납되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는 그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최근에 아이티를 방문했다. 앤더슨 장로는 아이티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을 영구히 기억하게 할 기념 명판 제막식을 감리했다. 제막식에 참석한 회원들은 행사 전에 미리 녹화된 몬슨 회장의 말씀을 방송을 통해 시청했다.

**교회가 2012년에 발생한 100개 이상의 재난에 대응하다**

매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자연 재해, 전쟁, 기근으로 고통을 겪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응급 지원을 제공한다. 2012년 한 해 동안 교회는 52개국에서 104차례의 재난으로 고통을 겪은 희생자들에게 수십만 파운드에 이르는 음식, 물, 의복, 의료 물품, 위생 장비 및 다른 구조 물품을 제공했다. 그밖에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백삼십만 시간 이상을 봉사했다.

2012에 교회에서 행한 가장 규모가

큰 재난 구조 노력은 미국 동부 해안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샌디의 희생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2012년에 교회는 샌디뿐 아니라 일본, 필리핀, 미국의 다른 지역들 및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난에 대응했다.

**일반 대중이 패밀리트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교회의 FamilySearch.org 인터넷 사이트의 패밀리트리가 개선되어 2013년 3월에 일반 대중에게 선보였다. FamilySearch.org에 접속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패밀리트리는 현재 교회 회원 계정과 비밀번호로만 로그인하여 접속할 수 있는, 새로운 FamilySearch(패밀리 서치)의 후속작이다.

이제 FamilySearch.org에 방문하는 다른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자신의 가계도를 작성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며, 자기 자신에서 시작하여 과거 세대까지 확장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FamilySearch(패밀리 서치) 마케팅 책임자인 폴럼 나우타가 말했다.

**더 열심히 애쓰게 해 주는 리아호나**

저는 리아호나를 사랑합니다! 리아호나를 읽을 때 저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대학에 가져가서 친구들에게 나눠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선교 사업을 행하며, 의를 택하도록 도움을 받습니다. 교회 잡지를 공부하며 매일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르려 더욱 애쓰게 됩니다.

아나스타샤 나프라스니코바, 우크라이나

**영적이며 현세적인 나침반**

리아호나는 제 간증을 강화하는 현세적이며 영적인 나침반입니다. 총관리 역원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도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 많은 개종한 성도들의 간증을 읽으면서 위안을 얻고 주의 포도원에서 더 효과적인 선교사가 되는 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고문 장로, 베병 코토누 선교부

**정정**

리아호나 2월호 27쪽에서 소개한 디마 이바노프는 실제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닌 울란우데에서 살고 있습니다.

# 희망의 길을 함께 걸으며

라린 포터 건트  
교회 잡지

**내**가 나부에서 희망의 길을 처음 걸어 보았을 때는 이른 봄이었다. 나는 금빛으로 반짝이는 빛과 따스한 그늘을 느끼며 가로수가 늘어선 그 거리를 걸었다. 사진작가인 나는 카메라 렌즈를 가득 채우는 멋진 빛과 셔터 스피드, 조리개에 신경이 쏠려 있었다.

그러다 점차 이 길을 걸었던 나의 조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들은 두 살배기 아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갔던 제러드와 코닐리아였다. 공기가 제법 쌀쌀했지만, 제러드 가족이 대 여정에서 겪었던 얼어붙는 추위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코닐리아는 나부에서 솔트레이크로 가던 길에 사망했다. 나는 아들을 안고서 발걸음을 재촉하며 슬피 울었을 제러드를 그려 볼 수 있었다.

그들이 나와 함께하는 듯한 그 느낌이 사라질까 봐 눈물이 시야를 가리는데도 나는 사진 찍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어린 사라가 떠올랐다. 사라는 사랑하는 새어머니와 함께 나부를 떠나는 마지막 성도 무리에 합류했다. 한번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영에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식량으로 삼게 하셨다. 그들은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힘겨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내 가슴은 벅차 올랐다. 마치 사라와 동행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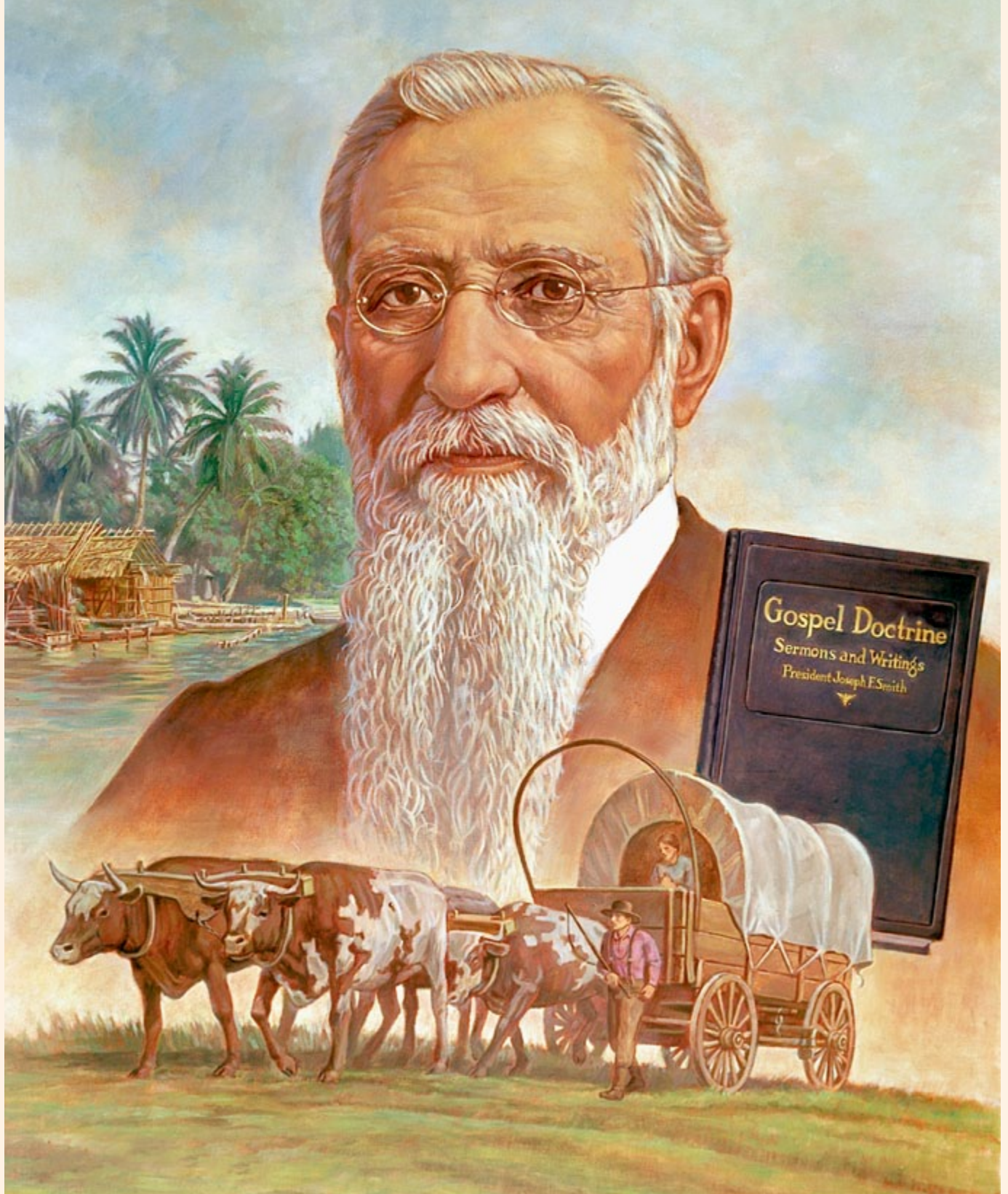


1846년 2월, 후기  
성도 개척자들은  
나부에서 쫓겨났다.  
그들은 시온에서  
평화를 찾으리라는  
희망을 품은 채  
지금은 희망의 길이라  
불리는 팔리 거리를  
걸어서 미시시피  
강을 건넜다.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제러드와 코닐리아, 그들의 어린 아들 역시 나와 함께했다. 우리는 빛과 그늘 사이로 과거와 현재가 하나가 된 이 길, 희망의 길이자 눈물의 길인 이 길을 그렇게 함께 걸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나와 함께하며 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랑을 일깨워 주었다. 가슴속에 간증이 불타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그 간증의 불길은 세대를 거쳐 내려왔으며 세대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초를 놓았다. 나는 감사함을 느끼며 울었다.

다른 곳에서 사진을 찍던 남편이 이내 뒤따라왔다. 나는 남편에게 다가서서 내가 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남편도 나부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가족 중에서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다. 150년도 더 전에 이 길을 걸었던 이들처럼 남편도 복음을 믿을 마지막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남편과 내 간증은 우리 자녀들의 간증을 키웠고 이제 그 간증은 그들 가슴속에서 불타오르고 있다. 제러드와 코닐리아, 사라의 간증이 수천 명에 달하는 후손의 간증을 키운 것처럼 말이다.

사진 찍는 것을 잊어버린 채 남편과 나는 예전에 그곳을 지나간 이들을 조용히 추억하며 남은 희망의 길을 천천히 함께 걸어갔다. ■



성화: 로버트 티 바렛

## 조셉 에프 스미스

조셉 에프 스미스는 일곱 살 때 가족의 황소 떼를 몰고서 일리노이 나부에서 유타 솔트레이크에 이르는 여정을 감당했습니다.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는 하와이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나중에 하와이 라이에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그분은 교회 회장으로서 그곳을 헌납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는 후기 성도들의 신앙을 이해한다면 사람들이 교회를 덜 핍박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믿음을 설명하는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 중 일부가 *Gospel Doctrine*(복음 교리)이란 책에 실려 있습니다.



**십** 이사도 정원회의 엠 리셀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썼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분명해진다면, 신앙은 우리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확신을 갖고 힘과 인도를 주실 것을 간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발자취에 신앙’이란 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 개척자 조상들이 그러했으므로 오늘날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16쪽의 “개척자 신앙과 불굴의 정신—과거와 현재” 참조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